

陰陽離合論을 바탕으로한 開闔樞 理論 研究

Study on the bolt-leaf-hanges in Three-yum and Three yang based on Treatise on the Darting and meeting of Yum and yang

하근호* · 권영규* · 김광중*

I. 緒論

三陰三陽의 開闔樞 理論은 東洋哲學을 바탕으로 生命體인 人間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인 韓醫學의 基本 陰陽 理論 中의 하나이다. 陰陽 理論은 初期에는 해와 달, 日光과 暗黑 等과 같이 서로 다른 存在의 對立的 相互關係¹⁾를 表現하는 手段으로 登場하였으나 老子, 孔子의 時代에 이르면 存在 内部에 있는 變化, 推動하는 힘의 源泉으로 理解하여 本體論으로 認識²⁾하게 되었다. 이러한 陰陽論이 韩醫學에 導入되면서 여러 가지 陰陽理論이 內經에 提示되었다. 그 중 內經 <陰陽離合論>의 陰陽理論에 의하면 陰陽은 離하고 合하는 過程을 三陰三陽과 開闔樞를 通해 遂行한다는 原理를 詮釋으로써 天地自然과 人間의 關係를 解明하고 人間에 對한 認識原理를 提供하였

다. 그러므로서 後代의 많은 醫家들이 그 理論을 應用하여 六氣에 대한 表記의 名稱과 傷寒論에서의 六經分證, 診斷과 脈象의 分類에 活用³⁾하고 人體의 生理, 病理 機能과 病候의 歸納, 病機의 推論과 傳歸의 分析, 豫後의 判斷 및 治療에 널리 應用⁴⁾할 수 있게 하였다. 韩醫學의 學問體系의 흐름은 自然界變化의 認識體系에 따라 五運六氣의 體系로 構成되어 있어 五臟六腑 또는 臟腑經絡 등이 中心을 이루고 있다. 自然界 變化의 認識의 틀을 五制와 六節로 區分하여 認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五運六氣의 體系는 運用狀況에 맞게 五運中心的 體系와 六氣中心的 體系로 나뉘어 發展되어 왔다. 오늘날 時代의 變化에 따라 지나치게 모든 狀況을 五運中心的 體系에 適用하여 運用하는 것에 대한 局限性을 認識하게 되어 六氣中心的 體系에 對한 關心과 研究가 增大되고 있다. 그에 따라 國內 韩醫學界에서도 80年代 後半부터 五行의 相生相克이론과 더불어 三陰三陽의 開闔樞理論이 韩醫學의 基礎理論으로서 그 意義가 크다는 점이 認識됨으로서 이에 대한 研究가 活潑하게 進行되어 그 結果 수 많은 研究 成

* :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김광중, 韩醫學의 形成과 體系, (대구: 중문사, 1991), pp. 90-5.

윤창열, 陰陽의 語源과 陰陽論의 起源에 關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 6: 1), p. 1.

2) “陰陽은 對立關係를 變化 發展하는 動의in 關係를 認識 可能하게 한 理論으로 發展한 것은 五行學說의 相生相剋理論과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의해서 可能해졌다.” 김광중, 전계서, pp. 118-9.

3) 윤창열, 二陰二陽의 開闔樞에 關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6, 5: 1), p. 13.

4) 강정수, 開闔樞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5: 1), p. 63.

果들이 報告, 發表되고 있다. 하지만 內經 原文의 表現이 含蓄的이고 難解하여 그 原旨를 理解하기 어려운 側面이 있어 歷代醫家들의 註釋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데 歷代 註釋들 또한 時代的 狀況과 哲學的 風土에 따라 解釋에 態意性이 있고 論理의 飛躍이 있으며 더욱이 六氣나 三陰三陽에 對해서도 五運中心的으로 解釋한 境遇도 있어 理解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 結果 그동안의 研究成果 에도 불구하고 三陰三陽의 陰陽論에 대한 解釋이 三陰三陽 理論을 단순히 陰陽論의 一部로 取扱하여 理解하거나 原文의 内容을 自身들의 論理에 맞추어 再構成함으로서 解釋이 原文를 規定하게 되어 原文의 概念 設定이나 表現을 修訂함으로서 既存의 解釋과 應用에 있어서의 運用原理나 解釋上의 長點들이 제대로 評價되지 못하고 基準마저 흔들리게 할 餘地가 있다. 이에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對하여 三陰三陽에 대한 初期의 論述이며 그 原理가 具體的으로 表現되어 있어 後代 註釋에서 經典으로 取扱되는 黃帝內經의 素問 <陰陽離合論>⁵⁾을 바탕으로 歷代 醫書와 最近에 發表된 여러 文獻들을 參考하여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對해서 原文의 表現을 再構成하여 그 原理를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相互關係와 陰陽關係 및 六經運動으로 나누어 體系적으로 整理함으로서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認識의 基盤을 마련해 보고자 本研究에着手하였다.

II. 本論

1. 研究方法

三陰三陽의 開闔樞⁶⁾는 陰陽離合論에 처음으로

- 5) 박찬국, 최삼섭, 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二陰二陽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 6: 1)*, p. 131.
- 6) 김광중, 經絡生理學, 전계서, pp. 18-20. "三陰三陽과 開闔樞는 五運의 原理인 五行의 相生相克을 바탕으로 하는데 아니라 經絡을 中心으로한 六經의 原理인 三陰三陽의 開闔樞와 標本中氣論 바탕으로 하는 六經의 調節機轉에 따라 經絡의 氣化學說과 傷寒論의 氣化學說을 이루게 된다. ... 開闔樞 三

登場⁷⁾하는 理論으로서 原文 表現의 含蓄性과 簡潔함으로 因해 이에 對한 解釋이 이후 紛紛하게 提起되었다. 本研究는 먼저 陰陽離合論에 대한 原文를 提示하고 原文에 對한 考察을 通해 三陰三陽과 開闔樞의 原理와 意味를 概括的으로 把握하고 이를 바탕으로 開闔樞의 概念을 設定하고 開闔樞의 陰陽關係와 六經의 開闔樞運動에 대해 論述함으로서 開闔樞의 概念 定立을 為한 基準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1) 原文 素問 陰陽離合論⁸⁾ 第六

黃帝問曰 余問 1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大小月 三百六十日 成一歲 人亦應之 2 今三陰三陽 不應陰陽 其故何也? 岐伯對曰 3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萬 萬之大 不可勝數 然其要一也 4 天覆地載 萬物方生 5 未出地者 命曰陰處 名曰陰中之陰 則出地者 命曰陰中之陽 6 陽予之正 陰爲之主 故 生因春 長因夏 收因秋 藏因冬 失常則天地四塞 陰陽之變 其在人者 亦數之可數 帝曰 願問三陰三陽之 離合也 岐伯曰 聖人 南面而立 7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8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陽根起於至陰 結於命門 名曰陰中之陽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9 太陰之前 名曰陽明 陽明根起於厲兑 名曰陰中之陽 10 厥陰之表 名曰少陽 少陽根起於竅陰 名曰陰中之少陽 11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12 三經者 不得常失也 搏而勿浮 13 命曰一陽 帝曰 願問三陰 岐伯曰 14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 中爲陰 15 其衝在下 名曰太陰 太陰根起於隱白 名曰 16 陰中之陰 17 太陰之後 名曰少陰 少陰根起於湧泉 名曰 18 陰中之少陰 19 少

者는 分立된 것이 아니라 相互協助의 하나의 整體로서 離는 陰陽이 각其 나뉘어 그이되며 合하여 一陰一陽이 되어서 서로 不得相失하여 動하면 나뉘어지고 靜하면 하나의 體가 된다."

7) 윤창열, 전계서, p. 13.

8) 흥원식, 校譜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4), pp. 51-53.

陰之前 名曰厥陰 厥陰根起於大敦 陰之絕陽 名曰
陰之絕陰 20 是故 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
闔 少陰爲樞 21 三經者 不得常失也 搏而勿沈 22
命曰 一陰 23 陰陽鍾鍾 積傳爲一周 24 氣裏形表
而 25 相成也.

2) 考察

(1) 天爲陽地爲陰 日爲陽月爲陰은 陰陽論에 있어事物의 認識原理로서 서로 다른 存在의 對立의相互關係를 表現하고 있다. 이는 初期의 陰陽理論⁹⁾이 事物과 事物間 또는 存在와 存在間의 相對的 對立性을 表現하는 手段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三陰三陽은 陰陽이 셋으로 分化(離)한 것을 表現하고 一陰一陽은 陰陽이 하나로 統一(合)된 것을 表現한다. 이에 黃帝가 三陰三陽이 陰陽에 應하지 못하는 理由를 물은 것이다.¹⁰⁾⁽¹¹⁾⁽¹²⁾⁽¹³⁾⁽¹⁴⁾

9) 김광중, 韓醫學의 形成과 體系, 전계서, p. 87. “春秋時代以前의 最初의 陰陽概念은 헛빛의 向背를 意味하였다. 즉 헛빛을 받아서 陽光이 充滿한 곳을 陽이라하고, 헛빛을 등져서 陽光이 적은 곳을 陰이라했다. 뒤에는 헛빛의 特徵을 根據로 하여 意味를 넓혀서 밝고 溫暖한 物體나 現象은 陽에 歸屬시키고 어둡고 寒冷한 物體나 現象은 陰에 歸屬시켰다. 즉, 낮은 陽이고 밤은 陰이며, 春夏는 陽이고 秋冬은 陰이며, 火는 陽이고 水는 陰으로 歸屬시켰다. 또한 太陽은 하늘에 있으므로 ‘天은 陽, 地는 陰’이고, 上은 陽, 下는 陰이며, 動은 陽, 靜은 陰(古代人們은 하늘이 움직이고 땅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음)이고, 氣는 陽, 形은 陰(天은 氣, 地는 形)等으로 認識하였다. 이렇게 陰陽의 concept를 擴大시켜 自然現象을 陰陽의 두 種類로 区分하였으며, 또한 宇宙萬物을 形成하는 根本物質인 氣自體도 陰陽으로 나누어 淸輕은 陽, 濁重은 陰으로 함으로써 陰陽의 concept은 매우 複雜하게 되었다.”

10)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6), p. 8.

11) 박찬국, 최상설, 전계서, p. 133. “우리意識이 客觀世界를 認識할때 비로소 둘의 陰陽世界가 成立한다.”

12) 王琦 외 4人, 皇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p. 39. “三陰三陽不應陰陽, 三陰三陽指人身的經脈, 因爲與陰陽學說的陰陽各一不同, 所以黃帝說: ‘三陰三陽不應陰陽, 但 從本編的內容來看, 經脈的離合關係不能離開 陰陽的道理’”

13) 이 경우, 編註譯解黃帝內經素問, (여강출판사, 서울, 1994), p. 194. “楊上善은 三陰三陽의 數는 각기 셋씩이어서 大地 日月 陰陽은 둘이라는 數와 應하지 않는다.”고 했다.

14) 윤창열, 三陰三陽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6), 4: 2, p. 352.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四象의 太陽, 少陰, 少陽, 太陰과 三陰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

(3) 三陰三陽은 陰陽의 變化推動하는 原理 15)(16)(17)로서 陰陽의 變化가 無窮無盡하나 結局 陰陽의 變化에 不過하다는 表現이다. ‘一’의 意味에 대해서老子는 道生一 一生二...라 하여 陰陽의 根本이 道임을 밝혔고 儒家에서는 太極에 理氣의 根本이 있음을 밝혔고 現代의 中醫學¹⁸⁾에서는矛盾의 對立과 統一의 原理를 活用하여 一의 原理를 解釋한다.

(4) 宇宙萬物은 天覆地載¹⁹⁾⁽²⁰⁾⁽²¹⁾에 있어 모든 事物이 陰陽의 理致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致를 人體에 適用하면 人體의 天과 地는 中身을 中心으로 上이 天이요, 下가 地라 그려므로 中身以上은 陽이고 中身以下은 陰(陰處)이 된다.

太陰, 少陰, 厥陰의 内容을 用語가 같다고 하여 混用해 왔는데 陰陽의 二次分化인 四象과 六氣의 變化인 二陰三陽마는 그 次元을 달리 하므로 比較의 對象이 될 수 없고 兩者사이에는 아무 關聯이 없다.”

15) 이경우, 전계서, pp. 194-5. “‘一’에 대해서는 歷代의 註釋家의 註釋이 芬芳하다. 張志聰은 〈素問集注〉에서 ‘一은 太初의 氣인 太極으로 보았다. 즉 天地定位 日月運行 寒暑往來 陰陽出入 總歸于太極一氣之所生’이라 하였고 王冰은 ‘一은 離合함을 이른다. 비록 이루 다 해야될 수 없을 지라도 그 要妙함은 미루어 나간다면 모두 알 수 있다.’고 하였고 陰陽의 道는 一에서 시작하여 이를 미루어 나가면 十百千萬으로 갈라져 나가 이루 해야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要點은 一陰一陽이다.’고 하였고 張介賓은 ‘陰陽의 道는 合하면 끝 하나요 흐트러 뜨리면 十百千萬이니 역시 陰陽의 變化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룸이다. 그로므로 드로남과 微微함大小함에 있어 象體는 無窮하며 그 가운데에 理致가 存在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비록 變化가 많다 할지라도 그 要點은 하나이니 하나는 즉 〈陰陽이 變해가는〉 理即 따름이다.’고 하였다.”

1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臺灣, 中和民國70年), p. 62. “楊維傑은 ‘事物在 發展過程中的對立和 統一的道理’라 하였다.”

17) 김동환, 現代科學과 朱子思想,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p. 183. “朱子는 그의 理論에서 ‘理’는 形而上의 存在요, ‘氣’는 形而下의 存在였다. 그러나 時間의으로 말하면 ‘理氣’는 同時의이다. 그리고 ‘陰陽’은 一氣에 不過하다.”

18) 楊維傑, 전계서, p. 62. “楊維傑은 ‘事物在 發展過程中的對立和 統一的道理’라 하였다.”

19) 홍원식, 전계서, p. 157. “素問 〈寶明全形論〉에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四時之法成.’”

20) 楊維傑, 전계서, p. 63. “天在上故爲覆 地在下故爲載 人氣下降 地氣上升.”

21) 이경우, 전계서, p. 195. “張志聰은 ‘天覆地載 萬物方生은 人地가 있는 그린뒤에 萬物이 이에 生겨남을 말한다 그 러나 人地가 萬物을 化育함은 四時에 따른 陰陽이 出入함을 경유해야 生長收藏할수 있으니 萬物의 終始’가 된다.”

本文의 太陽이 陰中之陽이 됨은 太陽이 中身以下에 있으므로 陰이다. 以下 六經이 모두 이러한 理致로 陰이 된다.

(5) 未出地者²²⁾²³⁾는 事物이 活動을 始作하기 전의 靜的인 狀態를 表現한 것으로 이를 陰處라 하였으며 陰中之陰이 되어 陰中之陽의 動的인 狀態와 對比된다. 여기서 한가지 注目할 것은 原文에 의하면 太陰이 陰中之陰²⁴⁾이다. 하지만 未出地者와 出地者의 相關關係는 少陰과 太陽의 關係로서 解釋된다. 그러므로 名曰 陰中之陰의 '陰中'은 地가 陰이므로 陰이요 '之陰'은 未出이므로 陰이 되는 것으로 解釋해야 妥當한 解釋이 될 수 있다.

(6) 陽予之正 陰爲之主²⁵⁾는 三陰과 三陽의 相關關係를 表現하고 있다. 즉 陽予之正과 陰爲之主에 의해 四季節의 變化와 季節에 따른 生長收藏이 可能해진다. 그러므로 陰陽의 正主가 紊亂해지면 自然界의 活動이 停止되고 陰陽에 變故가 생긴다. 이러한 關係를 生長收藏²⁶⁾하는 人體에

22) 楊維傑, 전계서, p. 63. “天爲陽主動 地爲陰主靜 潛伏而未出地面의 陰處.”

23) 이경우, 전계서, p. 195. “太極靜而生陰 動而生陽”이라 陰處는 즉 地下에 엎드려 숨어 處함이다. 張志聰은 ‘未出地者, 名曰陰處, 言處於陰中, 而陰中之陰’이라 했고 王冰은 ‘陰中에 處하여서 陰中의 陰이 된다’고 했으며 楊上善은 ‘사람이 物과 더불어 아직 생겨나기 전에는 함께 陰中에 있었으니, 未出地-아직 땅에서 나오지 않음이다. 아직 生하지 않음이 陰이며 陰中에 있으므로 陰中之陰이 된다’고 했다.”

24) 이경우, 전계서, p. 200. “原文에 ‘太陰根起於隱白 名曰 陰中之陰’이라 했다.”

25) 이경우, 전계서, pp. 198-9. “王冰은 陽이 正氣를 배풀음에 萬物이 바야흐로 生하며 陰이 主持하니 웃 形體가 이에 確立된다”고 하여 予를 輸로 正을 正氣로 主는主持함으로 이해했다. 張介賓은 陽이 그 氣를 主掌함에 萬物이 이에 生하며 陰이 그 質을 主掌함에 萬物의 形體가 이에 이루어진다. 《周易》에 이르기를 乾은 萬物의 始生함을 主掌하고 坤은 乾의 始生함을 받들어 萬物을 이룬다고 했으니 대저 陽이 먼저하고 陰이 나중하며 陽은 배풀고 陰은 그 배풀음을 받나니 陽의 輕清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陰의 重濁함은 質이 있게 마련이니 이를 이름이다. ‘고 하였다. 張志聰은 ‘밝은 곳을 處함을 일려 正이라고 하고 予는 나(我)이며 땅에 있는 氣는 바로 陰中之陰을 일함으로 陰이 이를 主掌한다. 내가 主掌하는 氣로써 밝은 곳을 處함해서 나가는 것이 陽이므로 陽予之正이라 한 것이요 앞을 廣明 뒤를 太衝이라고 하는데 이는 陰이 그 主가 되는것과 같다.’고 하였다.”

26) 김광중, 韓醫學의 形成과 體系, 전계서, p. 95. “五行(五

適用하는 것이 可能하다는게 原文의 内容이다.

(7) 廣明과 太衝²⁷⁾은 中身以上으로서 人身에 있어 天覆이며 陽이다. 廣明은 前에 있어 陽中之陽이고 太衝은 後에 있어 陽中之陰이다. 廣明과 太衝은 人에 있어 日과 月의 關係이다. 즉 天에 日과 月이 있어 陽과 陰이 되듯이 人體에도 日과 月의 役割을 하는 廣明과 太衝이 있어서 廣明은 中身而上에 있고 陽의 役割을遂行하여 陽中之陽이요 太衝은 中身而上에 있고 陰의 役割을遂行하여 陽中之陰이 된다.

(8) 太陽과 少陰의 關係는 原文에 “少陰之上名曰太陽”이라 하였고 그 意味는 出地者와 未出地者로서 出地者와 未出地者は 天地 陰陽의 相互關係로서 天은 陽 地는 陰이다. 天地陰陽의 對立이 變化推動하는 動적인 陰陽이 되면 天覆地載萬物方生하여 未出地者は 陰處가 되어 陰中之陰이 되고 出地者は 陰中之陽이 되는데 人體에서 少陰은 陰中之少陰으로 未出地者の 象이요 太陽은 陰中之陽으로 出地者の 象이 되어 少陰之上名曰太陽의 上下聯關係이 成立하여 上下關係²⁸⁾를 가진다.

(9) 陽明과 太陰의 關係는 原文에 “太陰之前名曰 陽明”으로서 陽明과 太陰은 前後關係²⁹⁾를 가진다.

運)에서는 生長化收藏이라 한다.”

27) 이경우, 전계서, pp. 198-9. “王冰은 ‘廣, 大也 南方丙火位主之 陽氣盛明 故曰大明也 向明治物 故 聖人南面而立 《易》曰 相見乎離 蓋爲此也 然在人身中 則心臟在南 故爲前卑廣明 衝脈在北 故爲後曰 太衝 然太衝者 腎脈與 衝脈合而盛大 故曰太衝’이라 하여 身體部位의 陰陽配屬과 方位에서 그 依微을 理解했고 馬蒔는 ‘廣明이란 心이며 心의 位置는 南方으로 火位를 主掌하며 陽氣가 盛明하므로 廣明이라고 한 것이다. 衝脈은 뒤에 있는데 이를 하여 太衝이라 한 것은 腎脈과 衝脈이 合해져 盛大하므로 太衝이라 한다.’고 하여 太衝을 太衝脈으로 理解했고 方位와 臟腑를 聯繫시켜 理解 했으며 張介賓은 《類經-經絡類》에서 ‘人身의 앞뒤에 經脈이 있어서 任脈은 배안을 따라서... 衝脈은 뒤로 行하면서...’라 하여 經脈의 循行으로 理解 했다.”

28) 김준기, 최달영, 二陰二陽表裏關係의 構成原理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5, 16: 1), pp. 441-2. “少陰과 太陽의 表裏構成은 上下關係로 보아야한다.”

29) 김준기, 최달영, 전계서, pp. 439-40. “陽明과 太陰의 表裏構成은 前後關係로 보아야 한다.”

(10) 少陽과 厥陰의 關係는 原文에 “厥陰之表名曰少陽”으로서 表裏關係³⁰⁾를 가진다. 少陽은 厥陰之表로서 表裏關係를 가진다. 이때 表裏의 對로서 裏를 設定한 것은 原文의 “氣裏形表”에서 보듯이 表는 裏의 對이다.

(11) 太陽이 開가 되고 陽明이 闔이 되고 少陽이 樞가 되는 原理는 “是故”라 하여 前文의 原理에 의해 開闔樞가 何을 論하고 있다. 또한 三陽은 三經이 되어 相互 不可分의 相關關係를 가진다. 이때 相關關係는 開闔樞運動을 한다. 開闔樞理論은 三陰三陽의 符號的 意味³¹⁾를 살아움직이는 力動的 本質의 概念으로 可能하게한 中心의 理論體系이다. 그러므로 開闔樞를 통해 陰陽은 離하고 合하는 存在가 된다. 이러한 三陰三陽의 陰陽離合의 基本原理는 開闔樞運動이며 開闔樞運動은 存在(生命體)의 生成(發顯)과 成長, 衰退, 消滅의 過程을 反映³²⁾하고 있다.

(12) 運動이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특히 三陽이 浮³³⁾³⁴⁾해서는 안된다.

(13) 三陽經의 役割은 그 本質이 陽이다. 즉 三陽經은 離하면 三陽이요 合하면 一陽이다.

(14) 內外는 陰陽으로 表現할 수 있다. 事物內部의 空間的 關係도 陰陽으로 認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속은 陰이요 겉은 陽이³⁵⁾ 된다. 그러므로 內外의 關係는 平面構造가 아닌 圓筒形構造로 써理解할 때 正確한 意味를 理解할 수 있다. 中³⁶⁾

30) 김준기, 최달영, 전계서, pp. 439-40 “少陽과 厥陰의 表裏構成은 表裏關係로 보아야한다.”

31) 신창열 외 1명, 千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경희대한의학연 구소논문집》, 1987, 10; 1), p. 114.

32) 흥원식, 전계서, p. 51. “原文 ‘生因春 長因夏 收因秋 藏因冬’”

33) 王琦 외 4人, 전계서, p. 39. “(指 三陽의 脈象 不能過于浮數)라 하여 이를 脈象으로 解釋하는 境遇도 있다.”

34) 이경우, 전계서, p. 200. “博은 二陽의 紵脈이 搏擊해 음이다.”

35) 흥원식, 전계서, p. 51. “原文, 陽在外 陰在內 中爲陰”

36) 이경우, 전계서, p. 202. “中은 세가지 說이 있다. 吳崑은 ‘腹中은 脾이며 衝脈은 脾의 아래에 있으며 衝은 陰이므로 脾의 이름을 太陰이라 한다.’고 하여 腹中으로 解釋했다. 馬時는 ‘人體의 中半은 마땅히 陰經이 되어 그 衝脈은 마땅히 아래에 있으나 衝脈의 위에 있는 것이 脾이다. 이를하여 太陰이라고 한다.’고 하여 ‘其衝在下’를 衝의 아래에 있다로 解釋하면서 中을 中半으로 解釋했다. 高世栻은 ‘밖은 陽이고 안은

은 ‘然則’이라 하여 內外關係에 의해서 中이 規定되므로 속을 意味하게 되며 속은 陰이 되므로 中은 陰이다.

(15) 其衝在下는 衝脈이 아래에 있다로 解釋하는 게 아니라 楊上善의 註³⁷⁾대로 其衝在下者로 解釋하여 衝脈의 下에 太陰이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16) 太陰이 陰中之陰이 되는 것은 中身以下에 있으므로 陰이며 中에 居하므로 陰이다.

(17) 太陰과 少陰의 關係는 原文에 의하면 “太陰之後는 名曰 少陰”이므로 太陰과 少陰은 前後關係³⁸⁾를 가진다. 물론 여기서의 前後는 陽明과 太陰과의 關係와는 달리 中(속)에서의 前後이다. 하지만 三陰의 關係에서 中心은 少陰이 三陰의 中心³⁹⁾이 된다.

(18) 少陰은 太陰의 後에 있어 上部의 陽의 影響을 받고 또한 太陰의 곁에 있으므로 陽의 影響으로 陰이 弱化되어 少陰이다.

(19) 少陰과 厥陰의 關係는 原文에 의하면 “少陰之前은 名曰厥陰”⁴⁰⁾이다. 그러므로 少陰과 厥陰의 關係는 前後에 位置⁴¹⁾하며 이 境遇 厥陰과 少陰은 前後關係를 가진다. 이러한 太陰-厥陰-少陰은 內(속)에서 前中後의 位置關係를 가진다. 厥陰은 少陰보다 속에 있어 陽의 影響을 받기 어렵고 太陰보다 아래에 있어 陰이 極히 盡한 狀態⁴²⁾⁴³⁾이다.

내이기 때문이다. 太陰脾十는 안에 있으며 中에 居한다”고 하여 內를 中으로 解釋하였다.”

37) 흥원식, 전계서, p. 53.

38) 김준기, 최달영, 전계서, p. 440.

39) 흥원식, 전계서, p. 53. “原文 ‘太陰之後 名曰少陰...少陰之前名曰厥陰’”

40) 이경우, 전계서, p. 202. “張介賓은 ‘腎의 위에 肝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少陰의 앞을 이름하여 厥陰이라 한 것이다’고 하였다.”

41) 김준기, 최달영, 전계서, p. 440.

42) 이경우, 전계서, p. 202. “絶陽 絶陰에서 앞의 絶은 ‘끊다’ ‘차단하다’의 뜻으로 解釋 되고 뒤의 絶은 ‘다함’, ‘絕頂’으로 解釋된다. 高世栻은 ‘厥陰은 다함이며 陰之絶陰은 純全한 陰이어서 절대로 결코 陰이 없음을 말함이다.’고 했으며 吳崑은 ‘二陰二陽이 이 級에 이르러 다하는 것이므로 絶陽이라고 한것이며 또한 이를하여 絶陰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43) 楊維傑, 전계서, p. 65. “純陰無陽을 가르킨다.”

(20) 太陰이 開가 되고 厥陰이 闔이 되고 少陰이 樞가 되는 原理는 “是故”라 하여 前文의 原理에 의하여 開闔樞가 됨을 論하고 있다. 또한 三陰은 三經이 되어 相互 不可分의 相關關係를 가진다. 이때 相關關係는 開闔樞 運動을 한다.

(21) 三陰經은 運動이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三陰이 沈(44)45)해서는 안된다.

(22) 三陰經의 役割은 그 本質이 陰이다. 三陰經은 離하면 三陰이요 合하면 一陰이다.

(23) 三陰三陽의 각각의 要素들은 自己의 機能을 다함으로서 轉移되어 여섯이 하나의 週期를 形成하여 空缺이46) 運動한다.

(24) 氣는 裏를 形은 表를 이룬다. 氣裏形表⁴⁷⁾는 三陰三陽의 一周에 의한 活動의 結果로 볼 수 있다.

(25) 三陰三陽은 存在의 內外關係로써 氣의吸收 消耗 排泄⁴⁸⁾의 全過程을 一周로 總體的으로 開闔樞運動을 한다. 三陰三陽의 兩者關係는 平面的, 時空間的 關係를 包括하는 總體의 內外關係로 規定되며 이는 각각의 開闔樞運動의 連關에 의해 具體的으로 表現된다.

三陰三陽의 平面的 構造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44) 王琦 外 4人, 전계서, p. 40. “指三陰的脈象 博于指而不可過于沈伏”라 하여 이를 脈象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45) 이 경우, 전계서, p. 203. “세 經 모두 陰이며 陰脈은 모두 沈해야 相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일 沈함이 지나치면 痘된다. 그러므로 다만 의당 沈搏하되 神이 있어야 하니 각其 그 陰脈의 中和한 體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三陰이 合하는 道인 것이다.”

46) 이경우, 전계서, p. 203. “중은 음이 中이며 중증은 往來함이 그치지 않음이다. 張介賓은 陰陽의 氣가 運動함이 그치지 않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積은 聚함이고, 傳은 陰陽의 經氣가 流傳함이다. 張介賓은 ‘流傳함을 모아 一周함은 여러 經氣가 流傳함이 서로 모임에 曝夜로 五十번을 營爲하고서야 一周함을 말함이다.’

47) 王은 「王琦 外 4人, 전계서, p. 40.」에서 “氣裏形表 意是 走經氣由裏出表 又從表裏相輔相成”라 하였고 장은 「이경우, 전계서, p. 203.」에 의하면 “張介賓은 ‘形은 氣로써 이루어지며 氣는 形으로써 모이므로’ 氣가 안으로 運行하고 形이 곁에서 確立됨에 사귀어 서로 쓰여지니 이것이 곧 陰陽이 表裏 하여 離合하는 가운데 서로 이루어 가는(相成) 道이다.”고 했다.

48) 박찬국, 최삼섭, 전계서, pp. 135-7.

	廣明(前) 陽中之陽	太衝(後) 陽中之陰
中身 前	陽明(前) 陰中之陽	太陰(後) 陰中之陰
	少陽(表) 陰中之少陽	厥陰(裡) 陰中之絕陰而絕陽

後

3. 開闔樞의 概念 設定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存在의 普遍의 運動原理를 解明⁴⁹⁾한데 그 意義가 있다. 陰陽論은 事物의 對立의 聯關을 解明함으로서 事物의 本體의 本質을 解明⁵⁰⁾한 것⁵¹⁾이지만 三陰三陽의 開闔樞論은 陰陽이 事物에서 實在的으로 어떻게 活動하는가를 具體的으로 解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文에서는 陰陽離合論에서의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表現을 分析하고 類推解釋함으로서 開闔樞의 相互關係와 그 原理를 理解하고자 한다. 이에 原文의 內容을 氣의 狀態, 名稱의 意味, 三陰三陽의 空間的位置, 經脈上의 根, 季節에 따른 生長收藏으로 區分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氣의 狀態

陰陽離合論에 의하면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三陰三陽의 氣의 狀態를 通해 理解할 수 있다. 氣의 狀態란 氣가 表現하는 바의 象이다. 그러므로

49) 박찬국, 최삼섭, 전계서, p. 133. “陰陽은 客觀的으로 觀察되어진 現象을 說明한 것이다.”

50) 박찬국, 최삼섭, 전계서, p. 134. “二陰二陽은 陰陽의 客觀的觀察에 主觀이 介入된 즉 十에의해 주관이 개입되어 大地人의 二才를 해명한 五行이 自我를 完成한 이후에 五行을 四象에 統合하여 이루어진 大地에 人을 合하여 이루어진 陰陽의 分化이다. 그러므로 人體의 經絡에 二陰二陽을 配屬한다.”

51) 김광중, 경각생리학, 전계서, p. 1. “韓醫學의 學文體系의 흐름은 自然界變化의 認識體系에 따라 五運六氣의 體系로 構成되어 五臟六腑 또는 臟腑經絡등이 中心를 이룬다. 自然界變化의 認識의 틀이 五制와 六節로 區分되어 認識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五運六氣의 體系는 運用狀況에 맞게 五運中心의 體系와 六氣中心의 體系로 나뉘어 發展되어왔다. 余元代以後 今派의 理論體系에 該當하는 五運中心의 體系가 主導를 잡음으로 因하여 現在의 狀況에 이르기까지 疾病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五運中心의 體系로 運用되어져오는 現況이 維持되고 있는 實情이다. 다만 部分的으로 必要에 따라 余元代의 古派의 理論體系에 該當하는 六氣中心의 體系가 運用維持되고 있다.”

三陰三陽의 氣에 대한 表現은 氣의 多少⁵²⁾를 表現하는게 아니라 原文에 의하면 “太陽은 陽多, 陽明은 陽多, 少陽은 陽少, 厥陰은 絶陽絕陰 ... ”이라 하여 氣의 狀態를 表現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少陽은 적은 것으로 理解할 수 있으나 太陽과 陽明사이에는 量의 多少를 區別할 수 없다. 하지만 後代의 醫家들이 이를 氣의 多少로 理解하였고 氣의 次序로 解釋하였다. 이러한 解釋은 氣의 多少를 素問 <天元紀大論> “陰陽之氣 各有多少故曰三陰三陽”的 解釋에 依存하고 素問 <陰陽類論>의 記述대로 “太陽; 三陽> 陽明; 二陽> 少陽; 一陽, 太陰; 三陰> 少陰; 二陰> 厥陰; 一陰”로 理解하게 되어 三은 表, 二는 裏, 一은 中이 되어 각其 開闔樞를 遂行하는 것으로 解釋하게 된다. 王冰 以後의 大部分의 歷代註釋에서는 氣의 多少로 理解하여 이 方法을 採用하고 있으나 實際로 王冰은 多少不等이라하여 陰陽氣에 差異가 있음을 表現했지 그것이 次序를 가진다고 表現하지는 않았다. 또한 氣의 多少에 따른 順序가 開, 闔, 樞와 一, 二, 三의 形式으로 陰陽의 順序대로 配置되지 못하는 論理的 缺陷을 갖게 된다.(本論 II-2 參照) 이에 王琦 等⁵³⁾은 ‘開闔樞의 配屬을 太陽太陰(三)-開, 陽明少陰(二)-闔, 少陽厥陰(一)-樞라하여 少陰을 二陰으로 闔’으로 理解하였고 厥陰을 一陰으로 樞로 理解하여 多少에 따른 陰陽次序로 開闔樞를 配屬하여 解釋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原文의 開闔樞 配屬과 다르다. 그러므로 氣의 多少니 氣의 次序니 하는 等의 理解는 氣의 出入과 循環을 解釋하는데 있어 論理의 合理性의 側面에서와 三陰經의 經絡 流注에서의 三陰交下에서의 位置規定의 論理의 合理性을 가지게 할 수 있어 有用한 듯 보이지만 素問 <陰陽離合論>에서는 볼수 없는 後代 註釋家들의

52) 안충범, 三陰三陽의 氣血多少論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한 한의학회지〉, 1996, 6: 1), p. 48. “三陰三陽의 氣血多少論은 氣(陽), 血(陰)의 多少를 意味하며 内經의 〈血氣形志編〉(九鍼編) 〈五音五味編〉에서 각其 相異하게 言及되어 있으며 馬蒔이 有의 大部分의 醫家들이 〈血氣形志編〉을 標準으로 삼고 있으나 理論的 根據가 相違하다.” 고 하여 氣의 多少論도 각其 解釋이 다른을 알 수 있다.

53) 王琦 외 4人, 전계서, pp. 41-2.

解釋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氣의 多少가 아닌 氣의 狀態가 올바른 表現이라 할 수 있다. 原文에서는 氣의 狀態를 陰陽의 屬性과 量으로 表現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太陽은 陰中之陽으로서 陽多하다; 이때 陽多는 陽이 強力함을 表現하고 있다. 즉 出地者 할 만큼의 強力함을 일컫는다. 따라서 太陽開는 陽의 強力한 氣運을 意味한다.

* 陽明은 陰中之陽으로서 陽多하다; 이때 陽多는 陽이 旺盛하게 活動함을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陽明闔은 陽의 旺盛한 活動力を 意味한다.

* 少陽은 陰中之少陽으로서 陽少하다; 陽의 氣運이 衰退 弱化된 것을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少陽樞는 陰으로의 轉化의 樞이다.

結局 三陽의 氣의 狀態는 三陽이 人體의 外를 主하므로 因해 人體의 外 즉 前面(陽明) 側面(少陽) 後面(太陽)을 擔當하는 氣의 活動樣相 즉 氣運의 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三陰의 氣의 狀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太陰은 陰中之陰으로서 陰多하다; 陰의 勢力이 強力함을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太陰開는 陰의 強力한 氣運을 意味한다.

* 厥陰은 陰中之厥陰이면서 絶陽으로서 絶陽絕陰하다; 따라서 厥陰闔은 陰의 狀態가 不安定함⁵⁴⁾을 意味한다.

* 少陰은 陰中之少陰으로 陰少하다; 陰의 勢力이 弱化되어 있음을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少陰樞는 陽으로의 轉化의 樞가 된다.

結局 三陰의 氣의 狀態는 三陰이 人體의 内를 主하므로 因해 人體의 内 즉 中(속)의 前中後를 擔當하는 氣의 흐름 즉 勢力의 偏差와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 대로 三陰三陽의 氣의 狀態는 陰陽氣의 量의 差異를 反映하여 氣運의 差異와 勢力의 差異로 區分하여 陰陽氣의 盛衰와 그에 따른 機能과 役割의 差異를 表現하고 있다.

54) 흥원식, 전계서, p. 493. “素問 (全真要大論)에 厥陰何也 曰 兩陰交盡也라 했다.”

2) 名稱의 意味

三陰三陽이 一陽, 二陽, 三陽 等과 같이 順次的으로 表現되지 않고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名稱이 三陰三陽의 屬性을 反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名稱의 意味⁵⁵⁾를 三陰三陽의 屬性과 聯關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太陽은 陽이 強하고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로부터 後代의 醫家들이 巨陽⁵⁶⁾⁵⁷⁾이라 하였다.

* 陽明은 陽이 盛함을 意味한다; 이로부터 後代의 醫家들이 兩陽而合明⁵⁸⁾이라 하였다. 盛陽之氣로 보았고 陽明은 떨쳐 날리는 것으로 드러나 어活動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 少陽은 陽이 衰小함을 意味한다; 이로부터 後代의 醫家들이 陽의 初生⁵⁹⁾으로 보았다. 一陽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三陽의 名稱의 意味를 보면 三陽은 氣運의 세기의 差異에 의해서 나뉘는데 陽의 세기는 太陽과 陽明이 陽多로서同一하다. 하지만 人體가 南面而立한 狀態에서 陽明은 前面에 있어 天의 明을 直接對하는 部位이므로 明으로서 陽多하고 太陽은 後에 있으나 出地者할 만큼 強力함으로 陽多하다. 그러므로 太陽은 强으로 陽明은 盛으로 解釋함이 安當하다. 이를 통해 볼 때 太陽 陽明 少陽은 陽의 밝기의 差異를 反映한 表現임을 알 수 있다. 즉 太陽은 강한 빛을 陽明은

밝은 빛을 少陽은 빛이 弱해진 狀態를 表現한다.

* 太陰은 陰이 多함을 意味한다; 陰氣가 内部에 充實充滿한 狀態를 알 수 있다.

* 厥陰은 陰이 衰盡⁶⁰⁾한 것을 表現한다; 陰氣가 微弱함을 알 수 있다.

* 少陰은 陰이 太陰에 비해서 적음을 表現한다; 陰氣가 弱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三陰의 名稱의 意味는 太陰 厥陰 少陰은 力의 偏差를 反映한 表現이다. 太陰은 陰의 力이 넓고 豊富한 狀態를 少陰은 力이 弱化된 狀態를 厥陰은 力이微微하여 陰의 役割을 겸우 遂行하는 狀態를 表現한다. 三陰三陽의 陰陽 屬性에 대해 三陰三陽을 六氣와 關聯지어 體用으로 解釋하는 境遇가 있다. 즉 李容範⁶¹⁾은 “六氣는 本이요 體이고 三陰三陽은 標이고 用이라 하여 六氣의 五行屬性에 따라 太陽은 寒水로서 水는 陰이기에 體는 陰이되고 用은 陽으로 陽의 現象을 보인다...”고 하여 三陽의 陰陽屬性을 陰으로 解釋하고 있다. 하지만 少陽은 相火인데 이를 陰으로 解釋한 것은 誤謬이며 厥陰이 陰盡인 理由를 “陰에서 陽으로의 轉化를 擔當하여 陰의 氣運이 消盡됐기 때문”으로 解釋한 것과 “太陽을 强力한 陽이라 하고 陽明을 陽의 全盛期”로 본 것 등은 그의 體用理論이 名稱의 意味에서 導出된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三陰三陽도 셋이요 開闢樞도 셋인데 이를 무리하게 體用으로 解釋하다보니 出發은 五行屬性에서 體用理論을 導入했으나 結局 三陰三陽의 名稱의 解釋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名稱은 三陰三陽과 開闢樞의 屬性를 反映하고 있으나 陰陽屬性이 곧 名稱에 局限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고 三陰三陽의 屬性은 文字 그대로 三陽은 陽이고 三陰은 陰⁶²⁾이 된다.

55) 송병찬, 三陰三陽의 運氣論의 理解,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三陰三陽의 命名은 運氣學에 使用되는 六氣로서의 三陰三陽이 있고, 經絡의 命名에 쓰인 十二經絡의 三陰三陽이 있고, 傷寒六經病證의 命名에 사용된 三陰三陽이 있다.”

56) 강정수, 三陰三陽의 概念과 太陽의 生理經脈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1). “太陽의 生理는 開闢樞에 있어서는 開이고 體用으로는 巨陽이며 氣血에서는 多血少氣하다.”고 하여 巨陽을 太陽寒水의 體用으로 解釋 했다.

57) 흉원식, 전계서, p. 187. “素問(熱論)에 (寒一日巨陽受之故頭項痛腰脊強)이라 하여 巨陽이란 表現이 나온다.”

58) 흉원식, 전계서, p. 493. “素問(至真要大論)에 ‘... 陽明何爲也. ... 以兩陽合明也’라 하였다.”

59) 김순기 외 1인, 二陰二陽表裏關係의 構成原理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5, 16: 1), pp. 441-2. “陰陽의 運動을 陽進陰退로 理解하면 少陽-陽明-太陽-太陰-厥陰-少陰이 되어 少陽이 初生이 된다.”

60) 張景岳, 전계서, pp. 979-80. “厥陰을 極盛한 것으로 理解하는 것은 太陽-陽明-少陽의 關係에 太陰-厥陰-少陰의 關係를 代入하여 設定한 것으로 厥陰을 陽明의 兩陽而合明으로 解釋한 것이다.” 그러므로 極盛은 最高潮에 達한 肝盛한 陰의 力을 表現한 것으로 原文의 絶陰絕陽에 符合하지 않는다.

61) 이용범, 전계서, pp. 27-30.

62) 原文에 “名曰 一陽, 名曰 一陰”이라 했다.

3) 空間的 位置⁶³⁾에 따른 意味

原文에서의 三陰三陽의 開闔樞 關係와 內容은 上下, 前後, 表裏, 內外의 空間的位置의 表現을 通해 設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空間的 位置에 따른 開闔樞의 意味解釋를 해보기로 하자. 原文에 의하면 三陽은 外에 있으며 三陽은 三陰과의 關係속에서 各其 自身의 位置를 가지는데 三陽은 三陰의 位置에 따라 그 位置가 規定되고 三陰은 太衝, 廣明의 關係에서 그 位置가 規定된다. 그 空間的 位置는 다음과 같다.

*太陽은 少陰의 上⁶⁴⁾에 있다; 太陽이 開인 것은 陽氣始生으로 生命活動의 初段階⁶⁵⁾이고 外氣와의 첫번째 接觸하는 關門⁶⁶⁾이다.

*陽明은 太陰의 前⁶⁷⁾에 있다; 陽明은 陽氣의 活動이 가장 旺盛한 時期로 太陽과 關聯에서 前後로 配置되어 氣가 太陽之後에서 陽明之前으로 轉入한다.

*少陽은 厥陰의 68)表에 있다; 少陽은 陽氣의 消滅衰退한 段階로서 陽明의 下에 位置하여 太陽과 陽明의 轉入을 推動하고 陽氣의 陰으로의 轉化를 擔當하는 段階이다.

三陰은 內⁶⁹⁾⁷⁰⁾에 있으며 三陰은 各其 自身의 位置를 가지는데 그 空間的 位置는 다음과 같다.

*太陰은 中에⁷¹⁾ 있다. 太陰은 中에 人體均衡의 中心⁷²⁾이 되고 三陽이 活動이 끝나고 陰

63) 原文에 의하면 三陰三陽이 開闔樞가 되는 理致를 “是故”라고 表現하여 上下 前後 表裏關係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空間的位置는 開闔樞를 解釋하는 重要한 道具가 된다. (表1, 表2를 參照).

64) 註 22)를 參照하라.

65) 흥원식, 전계서, p. 52. “三陰三陽의 開闔樞關係에 있어 太陽開가 가장먼저 言及되어있으며 少陰之上으로 則出地者로서 生을 擔當하여 生命活動을 始作하는 것이 太陽이다. 原文 “是故 三陽之離合也太陽爲開...”

66) 吳崑의 “開者一身之表 故衛也”(本論II-2 概念 參照)나 傷寒論의 “傷寒一日巨陽受之”(註 52) 參照)로 볼때 太陽은 外氣의 첫번째 接觸이 일으나는 部位이다.

67) 註 23)를 參照하라.

68) 註 24)를 參照하라.

69) 흥원식, 전계서, p. 53. “原文 ‘外者爲陽 內者爲陰’”

70) 김광중, 韓醫學의 形成과 體系, 전계서, p. 97. “陽은 機能을 陰은 物質의 基礎를 意味한다.”

71) 흥원식, 전계서, p. 53. “原文 ‘然則 中爲陰.’”

72) 이용범, 전계서, p. 16. “經絡의 位置를 볼때 厥陰은 體重

氣의 作用이 始作되는 內氣活動의 첫 段階이다. 外部의 邪氣가 內部로 轉入하지 못하게 防禦하는 強力한 防禦幕⁷³⁾이다.

*厥陰은 少陰의 前⁷⁴⁾에 있다. 厥陰은 太陰의 下⁷⁵⁾에 少陰의 前에 있어 그 位置上 가장 깊숙한 곳에 位置하여 後代의 醫家들이 陰이 至極한 것으로 理解했다 陰中의 陰이 된다. 그러므로 絶陰絕陽하다 太陰의 下에 있어 太陰과 開闔한다.

*少陰은 太陰의 後⁷⁶⁾에 있다. 少陰은 陰氣의 勢力이 衰退하여 陽氣의 活動이 始作되는 土臺가 되어 太陰과 厥陰의 開闔의 調節을 擔當하므로 樞이다.

결국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空間的 位置는 太陽은 後上에 位置하여 後가 되고 陽明은 前上에 있어 前이 되고 少陽은 前下에 있어 側이 되고 太陰은 中上에 있고 前이 되고 厥陰은 中下에 있고 中이 되고 少陰은 後下에 있고 後가 뒤를 알 수 있다. 또한 陽은 外에 位置하고 陰은 內에 位置함을 알 수 있다. 結局 三陰三陽과 開闔樞의 位置의 樣相이 平面的 立體的으로 複雜한데서 歷代註釋의 多樣한 解釋이 可能했음을 알 수 있다.

4) 經絡上 根⁷⁷⁾의 意味

의 지행 役割을 要求하게 되었고 位置의 으로 가장 安定的으로 支撐 할 수 있는 엄지발가락에 位置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운데 발가락에는 空白이 생겨...”이라는 見解가 있으나 양 발가락을 모아보면 그 中心(大趾內側)에 太陰이 있고 經絡流注上에서 前-中-後의 關係는 中(속)의 前中後이며 原文의 “然則 中爲陰其衝在下名曰太陰”에서 볼때 中(속)을 代表하는 것은 太陰이 된다.

73) 楊上善, 전계서, pp. 44-5.

74) 흥원식, 전계서, p. 53. 少陰과 太陰은 前後關係를 形成한다. 原文 “太陰之後 名曰少陰”

75) 一次元의 平面構造 (표1참조)에서는 厥陰이 太陰의 下에 있다. 다만 三次元의 立體構造 (표2참조)에서는 前-中-後로 나타난다.

76) 흥원식, 전계서, p. 53. 厥陰과 少陰은 前後關係를 形成한다. 그러므로 太陰-厥陰-少陰은 前中後의 關係를 가지며 少陰은 太陰之後 少陰之前으로서 樞가 된다. 原文 “少陰之前 名曰厥陰”

77) 이 경우, 전계서, p. 199. 根은 根據를 이룬다. 그러므로 二陰三陽의 關係는 그 根을 통해 相互關係를 人體에 適用할 수 있게 된다. 根起는 經脈(絡)과의 關係를 表現하고 있다. 張介賓은 “아래에 있는 것이 根이고 위에 있는 것이 結이다.”

三陰三陽은 各其 그 根本하는 바가 있으며 이를 原文에서는 '根起於'라고 表現하고 있다. 이를 통해 三陰三陽의 位置關係가 人體에 어떻게 配置되는가를 알 수 있고 根의 位置가 以後 經絡의 起始點으로 應用됨을 볼 때 經絡理論의 土臺가 되는 原理임을 알 수 있다. 이에 三陰三陽의 根과 起 그리고 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은 至陰⁷⁸⁾에서 根起하며 結⁷⁹⁾於命門한다. 至陰은 足小趾의 外側에 있어 人體의 外部를 擔當하며 外氣와의 接觸을 擔當함을 取象하고 있다. 命門에서 끝남을 表現한 것은 後面에서 前面(陽明)으로의 氣의 轉移를 表現하고 있다.

*陽明은 厥兌⁸⁰⁾에서 根起한다. 陽明은 太陽의 内側에 있어 外氣가 太陽을 通過 陽明으로 轉入함을 取象한 것이다.

*少陽은 穀陰⁸¹⁾에서 根起한다. 少陽은 太陽과 陽明사이에 있어 二陽之氣의 樞가 됨을 取象하고 있다.

太陰은 隱白⁸²⁾에서 根起한다. 隱白은 足大趾의 内側에 있어 몸의 均衡을 維持시켜줄을 表現하고 있다.

*厥陰은 大敦⁸³⁾에서 根起한다. 母趾의 外側에 있어 太陰과 開闢함을 表現하고 있다.

*少陰은 涌泉⁸⁴⁾에서 根起한다. 涌泉은 足掌에

있어 未出之者를 表現하고 있고 太陰과 厥陰의 바탕이 되어 樞의 機能을 가짐을 表現하고 太陽開의 地(基盤)가 됨을 表現하고 있다.

以上의 內容을 通해 볼 때 根은 三陰三陽의 位置關係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으며 이에 經脈이 起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根起는 三陰三陽의 聯關을 人體에 適用하는 基本的 틀이 된다.

5) 季節의 變化⁸⁵⁾⁸⁶⁾⁸⁷⁾와 三陰三陽의 開闢樞

原文에 의하면 季節의 變化는 生長收藏의 因하는 바가 되는데 生長收藏⁸⁸⁾은 開闢樞를 通해 遂

된다.

85) 김광중, 韓醫學의 形成과 體系, 전계서, p. 129. "六氣의 分類에 의하면 厥陰은 濕木으로 春을 主한다. 少陰은 烈火로 初夏를 主한다. 少陽은 相火로 夏를 主한다. 太陰은 濕土로 長夏를 主한다. 陽明은 燥金으로 秋를 主한다. 太陽은 寒水로 冬을 主한다." 고 하여 實際의 季節의 樣相과 三陰三陽의 六氣를 結付시켰다. 이것은 五行의 相生順序에 立脚하여 木生火生土生金水의 原理를 活用하여 分類한 方法으로서 "地生以木火土金水爲序...在地成形故地以五行之形相生爲序"에 根據한 것이다. 樓英, 醫學綱目, (서울, 일중사, 하책권40, '內經運氣流注'), p. 1750.

86) 王琦 외 4人, 전계서, p. 230-1. "素問(脈解)에 의하면 太陽은 1月-立春에서 雨水를 主하고 厥陰은 3月-清明에서 穀雨를 主하고 陽明은 5月-芒種에서 夏至를 主하고 少陰은 7月-立秋에서 處暑를 主하고 少陽은 9月-寒露에서 霜降을 主하고 太陰은 11月-大雪에서 冬至를 主한다." 다만 楊은 「太素」에서 少陰이 10月를 主한다고 되어 있다. 楊上善, 전계서, pp. 113-8.

87) 배병철, 內經의 學術思想, (동양의학, 65권, 1996), p. 20. "素問(四氣調神大論)에 의하면 가을에 겨울을 위하여 養生하는 것을 奉藏이라 하고 겨울에 봄을 위하여 養生하는 것을 奉生이라 하며 봄에 여름을 위하여 養生하는 것을 奉長이라 하는데 이는 곧 相生이다. 즉 春木 夏火 長夏土 秋金 冬水가 順序에 따라 相生하면 春生 夏長 長夏化 秋收 冬藏의 生化가 秩序整然하므로 '治'라 한다."

88) 原文에 의하면 生長收藏은 春夏秋冬에 起因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은 「김광중, 韩醫學의 形成과 體系, 전계서, p. 95.」에서 "生長化收藏이란 生氣 長氣 化氣 收氣 凍氣를 意味하며 五運의 特性은 內經에서 '本氣爲也'라 하여 宇宙의 一元의 本體를 對象화하는 外向形式을 氣와 位의 兩面性으로 規定하고 運行을 導出하여 모든 現象을 說明하였다. 즉 道無鬼神으로 獨在獨生하는 것이니 運行은 宇宙實體의 自己運動이다. 이 運動에 따라 生長化收藏의 烏雲이 終夭하며 真靈이 布氣되어 現象이 發顯한다."고 하였고 흥은 「총원식, 전계서, p. 233, 51.」에서 "寒暑燥濕風火 大地陰陽이 二陰二陽上奉之 木火土金水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下應之" "原文, 生因春

78) 임종국, 鍼灸治療學, (서울, 집문당, 1983), p. 387. 至陰은 足太陽膀胱經의 至陰穴(足小趾外側爪甲角의 外方 一分部位)이 된다.

79) 結은 終結의 意味이다. 結은 原文에 太陽에서만 許及되어 있으나 靈樞(根結) (楊維傑, 전계서, pp. 59-61.)에 의하면 "太陽根於至陰結語命門 命門者 目也 陽明根於厥兌 結於頸大 頸大者 鈎耳也 少陽根於穀陰 結於窩竈 窩竈者耳中也 太陰根於隱白 結於太倉 少陰根於湧泉 結於廉泉 厥陰根於大敦 結於玉英"이라 하였다.

80) 임종국, 전계서, p. 310. 厥兌는 足陽明胃經의 厥兌穴(足2趾爪甲이 外角根部1分에 位置)이 된다.

81) 임종국, 전계서, p. 456. 穀陰은 足少陽膽經의 穀陰穴(足4趾尖端의 爪甲外角에서 1分)이 된다.

82) 임종국, 전계서, p. 314. 隱白은 足太陰脾經의 隱白穴(足蹠趾의 爪甲의 内角에서 1分 程度의 赤白肉際部位)이 된다.

83) 임종국, 전계서, p. 460. 大敦은 足厥陰肝經의 大敦穴(足蹠趾外側 爪甲角囊毛側으로 1分)이 된다.

84) 임종국, 전계서, p. 392. 涌泉은 足少陰腎經의 涌泉穴(足蹠中央으로 足趾를 모두 底하면 足蹠中央에 생기는 陷中)이

行되므로 三陰三陽과 季節의 相關性을 理解하는 것은 開闔樞를 解釋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端緒가 된다. 이에 陰陽離合論에 根據해 季節을 三陰三陽에 따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 太陽의 季節分類는 春에 該當하고 이때 春은 生하는 機能을 가진다. 이를 開라 한다.

陽明; 陽明의 季節分類는 夏에 該當하고 이때 夏는 長하는 機能을 가진다. 이를 闔이라 한다.

少陽; 少陽은 春에서 夏로의 轉移와 陽季節에서 陰季節로의 轉化를 擔當한다. 이를 樞라 한다.

太陰; 太陰의 季節分類는 秋에 該當하고 이때 秋는 收하는 機能을 가진다. 이를 閉라 한다.

厥陰; 厥陰의 季節分類는 冬에 該當하고 이때 冬은 藏하는 機能을 가진다. 이를 闔이라 한다.

少陰; 少陰은 秋에서 冬으로의 轉移와 陰季節에서 陽季節로의 轉化를 擔當한다. 이를 樞라 한다.

여기서 注目되는 바는 樞의 機能이다. 樞는 陰과 陰 陽과 陽 사이에서는 轉移를 擔當하여 開合의 樞가 되고 陰陽사이에서는 轉化를 擔當하여 三陰經과 三陽經의 開闔樞活動의 反復 循環의 樞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因해 三陰三陽의 '積傳爲一周'가 可能하게 되고 傷寒論 등에 傳變原理로 應用可能하게 된 것이다.

以上의 內容을 綜合해 볼 때 開闔樞의 相互關係는 氣의 狀態, 名稱의 意味, 空間的 位置, 經脈의 根, 季節의 變化와 그에 따른 生長收藏을 包括하여 三陰三陽의 開闔樞關係가 成立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意味에 따른 概念設定은 다음과 같이 推論할 수 있다.

*太陽開는 陽多하여 陽으로서 陽의 氣運이 強力함을 表現하고 三陽中 巨陽이며 陽氣始生의 첫 段階이다. 人體後(背)部의 經脈을 主하며 少陰의 上에 있고 陽明과 開闔하며 春氣를 得하여 生하는 機能을 擔當한다.

*陽明闔은 陽多하여 陽의 氣運이 旺盛함을 表

長因夏收因秋藏因夏 "고 하였다. 그러므로 五運的理解에서는 樞가 化氣로 解釋되어 歷代 註釋家들이 이에 따른 解釋을 하였다. 하지만 原文에는 化氣에 대한 言及이 없고 化는 開闔樞運動의 樞相이면서 結果로서 理解되어 지는게 妥當하다.

現하고 盛陽之氣가 되어 陽氣의 活動이 가장 旺盛한 段階이다. 人體의 前(腹)部의 經脈을 主하며 太陰의 前에 있고 太陽과 開闔하며 夏氣를 得하여 藏하는 機能을 擔當한다.

*少陽樞는 陽少하여 陽의 氣運이 弱化된 것을 表現하고 厥陰의 表에 있고 二陽의 開闔을 樞하며 人體의 表(側)部의 經脈을 主하며 陽轉爲陰과 陽의 季節의 陰的季節로의 轉化를 擔當한다. 이에 三陽經이 相互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다.

*太陰開는 陰多하여 陰의 勢力이 크고 強함을 表現하고 陰氣가 充滿하여 氣의 活動의 中心이 되고 人體의 中에 있어 内部의 經脈을 主하며 厥陰과 開闔하고 秋氣를 得하여 收하는 機能을 擔當한다.

*厥陰闔은 絶陰絕陽하여 陰의 勢力이 微微함을 表現하고 陰氣의 活動이 停滯한 狀態로써 太陰之後 少陰之前에 있어 太陰과 開闔하고 人體陰部位의 中間部位의 經脈을 主하며 冬氣를 得하여 藏하는 機能을 擔當한다.

*少陰樞는 陰少하여 陰의 勢力이 弱化된 것을 表現하고 太衝之地로서 生命活動의 源泉이 되며 太陽의 下에 있어 人體의 後下部의 經脈을 主한다. 二陰의 開闔을 樞하며 陰轉爲陽과 陰의 季節의 陽의 季節로의 轉化를 擔當한다. 이에 三陰經이 相互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다.

以上의 內容을 要約하면 아래의 표로 整理된다.

氣의 狀態		空閒의 位置	根	季節
太陽	陽多	陽力旺氣運	少陰之上	春
陽明	陽多	旺盛且活動力	太陰之前	夏
少陽	陽少	陽氣運의 弱化	厥陰之表	轉化
太陰	陰多	陰勢力의 強力旺	內之中(前)	陰白
厥陰	極陰絕陽	陰勢力의 微微旺	內之中	冬
少陰	陰少	陰勢力의 弱化	內之後	轉化

4. 開闔樞의 相互關係⁸⁹⁾

三陰三陽은 陰陽 離合의 表現이다. 그러므로

89) 흥원식, 전개서, p. 51. "原義,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萬萬之大 不可勝數 然其要一"이라 하여 二陰三陽의 本質은 陰陽이고 二陰三陽은 陰陽離合의 樞相이며 關係란 兩者사이의 位置와 機能을 意味한다.

三陰三陽의 開闔樞 關係는 陰陽關係로 된다. 하지만 陰陽關係에 대한 後代의 解釋은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解釋上의 差異는 三陰三陽의 陰陽關係를 어떻게 理解하고 認識할 것인가의 差異에서 發生한다. 그런 점에서 最近에 提起된 陰陽關係認識의 方法을 두 部類로 分類하여 意義와 問題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陰陽을 矛盾의 對立과 統一로서 理解하는 醫家들⁹⁰⁾의 論理이다. 이들은 三陰三陽의 解釋에 있어서 “由陽入陰, 由陰入陽, 陰陽離合的關係”라 하여 “三陰三陽의 次序에 의해 張仲景의 原文이 開闔樞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면서 “三陰三陽은 三, 二, 一의 開闔樞關係에 따라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의 開闔樞運動을 하며 厥陰의 段階에서 由陰出陽으로 循環이 反復하거나 陰陽絕하여 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解釋의 底邊에는 “陰陽離合의 理論은 陰陽의 矛盾과 統一의 法則에 따르며 正因為兩者由離由合 相互依存 相互制約하여 臟腑經絡의 協助 統一이 維持되어 正常生理活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三陰三陽의 關係는 分明히 陰陽의 關係임이 틀림없고 그에 따라 轉化의 樣相은 ‘由陰入陽 또는 陰極而陽’이나 ‘由陽入陰 또는 陽極而陰’의 理論的 展開가 安當하다. 하지만 三陰三陽은 陰陽의 關係이면서 同時に 三陰과 三陽의 關係이다. 그렇기 때문에 陰陽離合論에서의 陰陽의 相互關係의 点이 ‘太陽, 太陰-開’, ‘陽明, 厥陰-闔’, ‘少陽 少陰-樞’(이를 三, 二, 一의 太陽과 太陰, 陽明과 少陰, 少陽과 厥陰으로 보든 相關敘이)의 順으로 結合되지 않고 太陽-少陰, 陽明-太陰, 少陽-厥陰의 陽開-陰

樞, 陽闔-陰開, 陽樞-陰闔의 陰陽關係로 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三陰三陽의 開闔樞가 三陽의 開闔樞, 三陰의 開闔樞라는 三陰三陽의 內外關係에 의한 陰陽 關係와 더불어 三陰三陽의 上下, 前後, 表裏關係의 陽開-陰樞, 陽闔-陰開, 陽樞-陰闔의 陰陽關係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의 對立的 相關關係의 側面만을 가지고 三陰三陽을 解釋하게 되면 도저히 原文의 相互關係(陽開-陰樞, 陽闔-陰開, 陽樞-陰闔)를 說明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陰陽關係이면서 同時に 離하고 合하는 三陰三陽의 關係로 認識하는 것이 安當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陰陽關係를 體用의 原理로 解釋하는 醫家⁹¹⁾들이 있다. 이들의 立場은 三陰三陽의 陰陽 關係를 “太陽-太陰(開), 陽明-厥陰(闔), 少陽-少陰(樞)의 陽外-陰內의 陰陽關係”로 理解하고 “太陽-少陰, 陽明-太陰, 少陽-厥陰의 關係는 陰陽屬性에 따른 表裏論의 區分이지 陰陽關係가 아니다.”라고 理解하여 “三陰三陽의 開闔樞關係는 內外를 中心으로 한 陰陽關係를 通해 把握되지 表裏論의 區分으로는 把握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이들은 “太陽-少陰(陽開-陰樞), 陽明-太陰(陽闔-陰開), 少陽-厥陰(陽樞-陰闔)의 位置關係에 의한 表裏關係가 實際에 있어서는 三陰三陽(用)과 六氣(體)의 體用의 原理에 의해 寒燥相火는 陰이 되고 濕風熱은 陽이 되어 三陽의 本은 寒燥相火의 氣로서 陰이며 三陰의 本은 濕風熱의 氣로서 陽이다.”라고 하여 “三陰三陽은 現象이고 六氣가 本體”임을 主張하여 “陽開-陰樞, 陽闔-陰開, 陽樞-陰闔의 關係는 寒-熱, 燥-濕, 相火-風의 關係를 表現하고 있다.”고 主張하여 “陰陽離合論의 太陽-少陰, 陽明-太陰, 少陽-厥陰의 位置關係는 六氣의 相關關係를 三陰三陽의 用事의 位置關係로 表現한 것”일 뿐 “三陰三陽의 開闔樞關係와는 關聯이 없다.”고 主張한다.

結局 이러한 이들의 主張도 陰陽論에 대한 理解에 있어서는 六氣와 聯關하여 體用이라는 表現

90) 王琦 外 4人, 전계서, pp. 40-2. 이들의 主張 中에는 開闔樞의 概念에 대해서도 以前의 註釋과 差異를 보이는데 揚은 「揚力」 전계서, p. 2.」에서 “由一開一闔及其樞轉于中的配合”이라 하여 開闔樞의 概念 設定을 함에 있어 ‘存在(事物)의 對立的 聯關은 陰陽의 對立關係의 表現인 開闔과 이를 推動媒介하는 樞’로 規定함으로서 二陰三陽의 運動原理를 理解함에 있어 ‘開闔樞를 開闔의 對立性을 中心으로 樞를 開闔의 陰陽關係에서 分離하여 認識’함으로서 開闔樞 認識의 方法論을 開闔樞 三者の 聯關에서 찾지 않았다. 이렇듯 矛盾論에 立脚한 解釋方法論은 現代 中醫學理論에 廣範圍하게 適用되고 있다.

91) 이용범, 전계서, pp. 16-19, 27-30, 62-63.

을 使用했을 뿐 陰陽關係를 兩者間의 對立關係라는 矛盾의 對立과 統一의 原理를 主張한 立場과 差異가 없다. 즉 三陰三陽과 六氣의 三者間의 個別的 開闔樞關係를 否定하여 三陰三陽과 六氣를 寒, 燥, 相火와 濕, 風, 熱이 둑음으로 取扱되어 寒, 燥, 相火가 陰으로 되고 濕, 風, 熱이 陽으로 되는 陰陽의 對立關係로 把握하여 理解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陽開-陰樞, 陽闔-陰開, 陽樞-陰闔의 關係를 開闔樞의 陰陽關係가 아닌 陰陽屬性에 따른 즉 體用에 의한 表裏論의 區分이라는 主張를 하게 된 것이다. 結局 陽開-陰樞, 陽闔-陰開, 陽樞-陰闔의 相關關係가 陰陽關係임에도 불구하고 그 意味를 제대로 把握하지 않은 채 體用의 原理로 그 意味를 解釋함으로서 三陰三陽의 陰陽關係를 三陽在外, 三陰在內의 内外關係만을 陰陽關係로 解釋한 것은 陰陽離合論에 表現된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陰陽關係 解釋에 있어一部만 理解한 것으로 되어 全體를 理解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1) 開闔樞의 陰陽關係

陰陽離合論에서의 三陰三陽의 關係는 開闔樞의 陰陽關係로 表現되는데 原文에 의하면 陰樞-陽開, 陰開-陽闔, 陰闔-陽樞의 關係로 設定하고 있다. 즉 三陰三陽은 空間的 位置關係를 통해 開闔樞 運動이 遂行된다. 原文의 空間配置에 의하면 三陰三陽은 二次元的 平面的 配置와 三次元的 立體的 配置의 統一로서 表現된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三陽經의 二次元的 平面的 空間配置⁹²⁾는 太陽은 少陰之上이고 陽明은 太陰之前이며 少陽은 厥陰之表이다. 二次元的 平面配置인 上下, 前後, 表裏를 하나의 空間에서 同時に 表現하면 이들은 三次元的 立體構造를 形成하게 되며 三陽經은 太陽-後, 陽明-前, 少陽-側의 立體的 關係로 表現된다. 三陰經의 二次元的 平面적 空間配置는 太陰은 中의 上에 厥陰은 中의 下에 少陰은 後의 下에 配置되고 이들을 三陽經과 함

92) 二次元의 이란 첫째, 兩者間의 關係를 意味한다. 둘째, 平面的 位置 關係를 意味한다. (表 1 參照)

께 하나의 空間에서 同時に 配置하면 太陰은 衝의 下로서 太陰之後는 少陰이고 少陰之前은 厥陰으로서 太陰-前, 厥陰-中, 少陰-後의 立體的 關係로 表現된다. 三陰經과 三陽經의 内外關係에 따른 空間的 配置를 하나의 空間에서 同時に 配置하면 陽-外, 陰-內의 圓筒形의 立體構造를 가진다. 그러므로 二次元的 平面적 空間配置에서의 開闔樞는 다음과 같다.

- * 少陰樞에 의하여 太陽開가 生한다.
- * 太陽開는 陽明闔과 開闔運動을 한다.
- * 少陽樞는 開闔을 調節하고 陽經의 陰經으로의 轉化를 樞한다.
- * 少陽樞氣에 의해 氣는 外에서 內로 入하여 太陰이 開의 活動을 開始한다.
- * 太陰開는 厥陰闔과 開闔運動을 한다.
- * 少陰樞는 開闔運動을 調節하고 陰經의 陽經으로의 轉化를 樞한다.

三陽經의 三次元的 立體構造⁹³⁾에 의해 太陽-陽明-少陽의 三陽은 太陽은 後面에 位置하고 陽明은 前面에 位置하며 少陽은 側面에 位置하여 機能을 發揮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經絡上의 流注經路는 身體의 後, 中, 前으로 配置하게 되었다. 三陰經의 三次元的 立體構造는 內에 있고 太陰-厥陰-少陰의 三陰은 前, 中, 後⁹⁴⁾로 配置되어 機能을 發揮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經絡上의 流注經路는 身體 內部의 前, 中, 後, 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二次元的 空間配置와 三次元的 立體構造를 人體라는 하나의 空間에서 理解하면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있어 '太陽-陽明-少陽, 太陰-厥陰-少陰'의 三陽經의 開闔樞關係와 三陰經의 開

93) 二次元의 이란 二者間의 關係를 意味하며 立體的 位置 關係를 意味한다.

(表 2 參照)

94) 김은「김중한, 荈帝內經에 나오는 二陰二陽과 開闔樞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동의대학교학술논문집, 1997.〉 p. 19.」에서 「二陽經은 經脈走行部位上의 差別에 의해 開闔樞가 解釋되고 二陰經은 經脈內의 流注關係로 開闔樞를 解釋하였다 고 본다. "고 하였고 박은 「박찬국, 최삼섭, 전계서, pp. 135-8.」에서 "二陰交以上에서의 流注經路는 이에 符合한다."고 하였다.

閨樞關係가 '陽開-陰樞, 陽閨-陰開, 陽樞-陰閨'의 陰陽關係를 通해 實現되는 三陰三陽의 陰陽關係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生長收藏이라는 事物(人間)의 實際的 活動과 聯關시켜 解釋하면 다음과 같이 理解될 수 있다.

(1) 上下關係-陰陽活動의 生成原理

太陽과 少陰은 '少陰之上 太陽'으로서 上下關係를 이룬다. 太陽經과 少陰經의 關係는 陽開 陰樞의 關係로서 少陰樞氣에 의해 太陽開가 實現되는 過程을 通해 陰에 依存한 陽의 生成原理를 表現하고 있다. 少陰은 未出地者로서 生命活動의 地⁹⁵⁾가 되고 陰이며 太陽은 出地者로서 生命活動의 始作이고 陽이다. 그러므로 太陽-少陰의 上下 陰陽關係의 意味는 陰陽의 活動이 일어나는 過程을 太陽 少陰의 相互關係를 通해 解明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의 氣의 狀態는 陰으로부터 氣의 升이 이루어지고 太陽으로부터 陽明-少陽-太陰-厥陰에 이르는 循環을 通해 氣가 下(陰)에서 貯藏된다. 그러므로 이를 三陰三陽에 있어 氣의 升降運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五行學說의 升降運動⁹⁶⁾과 差別을 가진다. 五行學說의 升降運動은 水升火降⁹⁷⁾의 關係인데 이는 寒熱의 代謝作用으로 水와 火가 存在 内部의 溫熱代謝⁹⁸⁾를 主管하

95) 흥원식, 전개서, p. 51. "原文, 太衝之 地 名曰 少陰"

96) 윤은『윤길영, 東醫學 方法論 研究, 전개서, p. 27.』 "陰陽昇降이라는 것은 宇宙에 있어서는 季節에 따라 寒熱이 交代하는 寒熱代謝요 人에 있어서는 热의 生成과 热의 放散으로 热이 交代하는 热代謝를 말하는 것이다." 고 했고 윤은『총원식, 전개서, p. 398.』에서 "素問〈六微旨大論〉에 의하면 '氣의 升降은 天地의 更用이다 升降이 아니면 生長化收藏이 없게 된다. 降하는 者를 일러 犬이라 하고 升하는 者를 일러 地라 한다.'"고 하였고 김은『김완희외, 臟腑辨證論治, p. 78.』에서 "昇降이란 上下昇降이라고도 하는데 이 上下昇降은 宇宙萬物의 運動形式이며 人體에서도 生命活動을 試爲하는 基本 原理로 認識되고 있다."고 하였다.

97) 문성철, 김성훈, 歷代醫家들의 升降論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7, 11: 1), p. 114. "陽의 極을 火라하고 陰의 極을 水라 한다. 火, 水가 極에 이르러면 中和의 氣運을 土라하는데 土를 中心縮으로 하여 木의 作用으로 昇하고 金의 作用으로 下降하여 水火의 升降이 이루어 진다."

98) 김정우, 김길선, 經絡의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 〈대한동의생리학회지, 1990, 5: 1), pp. 138-40. "六氣論에 있어서

는 代表的 對立物로써 자신들의 相互關係를 通해 升降運動을 實現한다. 즉 現代의 中醫學의 理論의 中心인 辨證法의 唯物論⁹⁹⁾에 의하면 '運動은 存在 内部의 對立關係인 矛盾에 의해 그 動力이 提供 받는다.'고 하여 陰陽의 相對的 對立性이 内部의 서로 다른 두 側面의 關係로서 說明되고 있다. 그러므로 五行學說의 升降運動은 水火의 對立的 關係에서 中土의 缩과 木金의 左右道路를 通해 升降의 陰陽運動이 實現되지만 陰陽離合論에서는 升降이 비록 少陰과 太陽의 關係에서 升이 이루어지지만 降은 立體的 相互作用 즉 三陰三陽의 開閨樞에 의해 總體의¹⁰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設定하여 升降運動이 三陰三陽의 開閨樞의 陰陽運動의 結果임을 表現하였다. 하지만 後代의 醫家들이 上下關係를 陰陽活動의 生成原理인 升하는 運動樣相의 表現으로 보지 않고 表裏關係로 解釋함으로서 太陽經과 少陰經의 上下關係의 意味는 後代에 經脈上에서 足太陽膀胱經과 足少陰腎經의 相合關係의 表現으로 理論화되고 手太陽小腸經과 手少陰心經의 相合關係로 擴大되게 된다.

(2) 前後關係- 陰陽活動의 相互 轉移 轉化原理

陽明과 太陰은 '太陰之前 陽明'으로서 前後關係를 이룬다. 陽明經과 太陰經의 關係는 陽閨, 陰樞의 關係로서 陽明과 太陰은 陰陽氣의 相互交流를 通해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하게 하여 '轉移와 轉化'의 陰陽活動原理를 表現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의 氣의 狀態는 氣의 出入¹⁰¹⁾으로 表現된

寒氣와 热氣는 少陰君火와 太陽寒水의 關係로서 相互 热의 供給과 寒의 供給作用을 通해 氣化(代謝)作用을遂行한다."

99) 辨證法의 唯物論은 헤겔의 辨證法 理論과 마르크스의 唯物論을 結合한 哲學과 思惟의 方法論이다. 現代의 中醫學은 이 를 基礎로 陰陽을 解釋한다.

100) 升降이 兩者間의 相互對立關係에 依存하지 않고 三陰三陽의 開閨樞運動의 結果로 이루어짐은 陰陽離合論이 가지는 獨特한 升降論理이다.

101) 윤은『총원식, 전개서, p. 397.』에서 "素問〈六微旨大論〉에 의하면 '故無不出入無不昇降'이라 하여 出入과 升降은 相互 不可分의 關係임을 밝혔다. 윤은『윤길영, 전개서, p. 27.』에서 "陰陽出入이라는 것은 宇宙에 있어서는 萬物이 生

다. 그러므로 이를 三陰三陽에 있어 氣의 出入運動으로 볼 수 있다.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前後關係에 의한 陰陽氣의 出入을 통해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하게 하는데 原文에 表現된 前後關係에 의한 出入運動의 關係는 다음과 같이 表現되고 있다.

첫째 前後 陰陽의 關係는 陽明과 太陰의 陽闔-陰開의 關係로 代表된다. 그러므로 氣의 出入關係는 陰陽運動의 바탕위에서 成立된다.

둘째 太陽과 陽明은 後-前의 關係를 가짐으로서 開闔의 關係가 되어 氣의 出入運動이 成立된다. 이때 太陽과 陽明은 位置關係에 의한 前後關係를 가질 뿐만 아니라 開闔關係에 의해 時間的推移에 따른 先後關係도 가진다.

셋째 三陰經은 內의 前, 中, 後 關係에 의해 太陰, 厥陰, 少陰의 前後關係를 가진다. 그러므로 太陰과 厥陰은 空間의 位置關係에 의해 前後關係를 가짐으로서 氣의 出入運動을 遂行하고 開闔의 關係에 의해 時間的推移에 따른 先後關係를 가진다.

太陰과 少陰은 空間의 位置關係에 의해 前後關係를 가짐으로서 氣의 出入運動이 遂行되며 開闔의 關係가 氣의 出入의 側面으로도 理解될 수 있음을 表現하고 있다.

厥陰과 少陰은 空間의 位置關係에 의해 前後關係를 가짐으로서 氣의 出入運動이 遂行되며 闔樞의 關係가 氣의 出入의 側面으로도 理解될 수 있음을 表現하고 있다. 이를 통해 三陰經의 氣의 出入運動은 少陰樞를 中心으로 그 役割과 機能이 遂行됨으로서 太陰과 厥陰, 太陰과 少陰, 厥陰과 少陰의 前後關係에 따라 開闔樞에 의한 氣의 出入運動이 遂行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注目되는 바는 三陽經의 開闔樞는 前, 側¹⁰²⁾, 後가 되

成消滅하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人에 있어서는 人身으로 들어 가고 人身에서 나오는 것이니 出納代謝를 意味한다. “고 했으며 장은 『장개빈편』 전계서, p. 286.』에서 “開者主出 闔者主入”이라 하여 開闔의 關係는 出入의 關係이다.”고 하였다.

(102) 平面의 左右를 立體로 부풀리면 兩쪽의 가장자리(表)가 펼쳐져서 立體의 平面를 이룬다. 그러므로 前面과 後面의 兩側面은 少陽經의 空間의 位置가 된다.

어 前과 後는 氣의 出入關係가 成立하지만 前과 側, 側과 後는 前後關係가 成立되지 않음으로 氣의 出入關係가 成立되지 못하여 全體的으로는 氣의 出入運動關係가 成立되지 않음에 比해 三陰經의 開闔樞는 前, 中, 後의 位置關係를 가짐으로서 前과 中이 前後가 되고 中과 後도 前後關係가 되어 三陰經이 全體的으로 氣의 出入運動의 關係가 成立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後代의 註釋이 三陰經과 三陽經의 氣의 出入을 解釋함에 있어 同一한 것대로 解釋하지 못하는 理由가 된다.

넷째 三陰經과 三陽經은 三陽-前, 三陰-後의 時間的推移에 의한 前後關係를 形成한다. 그러므로 三陽經과 三陰經 사이에도 氣의 出入運動關係가 成立한다. 이는 太陽으로부터 始作된 開闔樞에 의한 氣의 흐름이 外의 陽에서 內의 陰으로 轉化함에 따라 成立된 關係이다. 즉 三陽經의 三陰經으로의 轉化가 空間의 位置關係 속에서는 內外의 關係를 이루지만 空間의 位置에 따른 開闔樞關係에 의한 時間的推移에 있어서는 先後關係가 成立되어 時間의 으로 前後關係를 가짐으로서 成立된 것이다. 그러므로 三陽經은 前, 三陰經은 後의 氣의 出入運動이 成立한다.

結局 陽明과 太陰의 前後 陰陽關係는 空間의 位置와 時間의 推移에 따른 轉移, 轉化하는 氣의 出入運動을 反映한 表現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前後陰陽關係를 後代의 醫家들이 表裏 關係로 解釋함으로서 陽明經과 太陰經의 前後關係의 意味는 後代에 經脈上에서 足陽明胃經과 足太陰脾經의 相合關係의 表現으로 理論화되고 手陽明大腸經과 手太陰肺經의 相合關係로 擴大된다.

(3) 表裏關係¹⁰³⁾- 陰陽活動의 收斂 貯藏 原理

103) 김은 그의 論文 『김준기, 최달영, 전개서, pp. 438-40.』에서 “表裏 關係는 經脈(絡)上에서 手足三陰經과 手足三陽經의 相合關係를 일컫는 表現이 된다.”고 하였고 양은 『楊育周, 浙江中醫學院報, p. 12.』에서 “少陽과 厥陰은 開闔樞에 있어서 實際로는 樞이다. 少陽과 厥陰의 機能은 相火로서 樞機作用을 遂行한다. 그러므로 開闔樞의 代謝作用은 樞機와 樞機不利로서 理解할 수 있다.”고 하였다.

少陽과 厥陰은 '厥陰之表 少陽'으로서 表裏關係를 이룬다. 少陽經과 厥陰經의 關係는 陽樞, 陰闔의 關係로서 上下關係 前後關係에 의한 陰陽活動을 包括하여 開闔樞運動의 結果를 反映하고 있음으로 해서 陰陽活動의 收斂과 貯藏의 原理를 表現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의 氣의 狀態는 少陽은 三陽經 全體를 包括하여 表가 되고 厥陰은 陰을 藏하여 內蓄한 狀態로 된다. 이에 少陽과 厥陰으로 나누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少陽은 三陽經의 三陰經으로의 轉化를 擔當하므로 이를 樞라 하였다. 이를 原文에서는 表라고 表現하였는데 表는 二次元的 平面關係에서는 陽明의 下가 되고 厥陰의 前이 되어 表라 하는데 이는 三次元의 立體關係에서는 當然히 三陰의 外에 位置한다. 그러므로 表는 厥陰과의 關係에서는 陽樞-陰闔의 陰陽關係를 가지지만 機能에서는 陽明의 下에 位置한다는 意味에서 太陽과 陽明의 開闔運動을 調節하여 三陽經의 樞의 기능을 수행하고 三陰의 外에 位置한다는 意味에서 三陰經의 開闔樞運動이 始作될 수 있도록 氣를 外에서 內로 轉入하게 하는 轉化의 機能을 擔當하게 되어 三陽의 開闔樞運動의 結果를 收斂하는 機能을 가지게 되어 樞의 活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厥陰은 二次元的 平面關係에서는 中의 下가 되고 三次元의 立體關係에서는 內의 中이 되어 裏라 하는데 太陰과 厥陰의 關係에서는 開闔의 結果 氣가 太陰에서 厥陰으로 轉入한 狀態를反映하고 厥陰과 少陰의 關係에서는 少陰이 生의 過程에서 三陽氣의 機能이 發顯될 수 있게 地가 되어 樞氣로 되므로 厥陰은 生長收藏의 生命活動에 있어서는 絶陰絕陽이 되어 '內部에 活動性은 있으나 外部에 드러나지 않는 狀態'인 藏의 機能을遂行하게 된다. 이로 인해 後代의 醫家들이 生, 長, 收, 藏-生, 長, 收, 藏의 反復의 循環運動에 있어 藏의 다음 段階로서 生이 發顯됨으로 藏의 機能을遂行하는 厥陰을 三陰經의 三陽經으로의 轉化를 擔當하는 樞로 解釋하게 된 理由가 된다. 結局 少陽과 厥陰의 表裏 陰陽關係는 三陰三陽의 平面의 立體의 位置關係에 의해 少陽 表는 太陽, 陽

明의 開闔運動을 調節하는 機能을 통해 三陽의 活動을 收斂하여 陽에서 陰으로의 氣의 轉化 樣相을反映한 表現으로 되고 厥陰 裏는 三陰의 開闔樞運動의 結果를 藏하는 機能을反映한 表現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少陽經과 厥陰經의 表裏 陰陽關係를 表裏構成의 關係로 解釋함으로서 少陽經과 厥陰經의 表裏關係의 意味는 後代의 陰經과 陽經의 相合關係로 表現되고 經脈上에 있어서는 足少陽膽經과 足厥陰肝經의 相合關係의 表現으로 理論化되고 手厥陰心包經과 手少陽三焦經의 相合關係로 擴大된다.

(4) 內外關係 104) 105)- 三陰과 三陽의 總體的 陰陽關係

三陰三陽의 空間的 位置關係는 '陽在外 陰在內'로서 三陰經과 三陽經은 內外關係를 이룬다. 三陽經과 三陰經은 平面的 立體的 位置關係를 통해 上下, 前後, 表裏의 陰陽關係를 이루며 이것을 하나의 空間에서 同時에 表現하면 圓筒形의 立體構造(그림 1 參照)를 形成함으로서 三陰經과 三陽經이 陽-外, 陰-內의 位置關係를 이루게 되어 開闔樞運動은 內外關係를 통한 三陰三陽運動으로 된다.

그러므로 '陽在外, 陰在內'는 太陽-陽明-少陽의 外와 太陰-厥陰-少陰의 內에 의해 三陰經과 三陽經은 相互聯繫되어 一周運動이 成立됨을 表現한 것이다. 즉 內外 陰陽關係를 통해 三陰經과 三陽經은 太陽開-陽明闔-少陽樞-(轉化)-太陰開 厥陰闔 少陰樞의 關係를 成立시켜 開闔樞가 一定한 形式을 가지고 각각의 聯繫이 順次의 으로 移行하는 一周運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內外 陰陽關係를 成立시킬 '陽在外 陰在內'의 原理가 原文에 表現되어 있지 않았다면 三

104) 경인구, 二陰二陽의 概念에 對한 比較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이리, 1993), p. 14. "內外關係는 二陰經과 二陽經의 二次元的 立體關係(表2參照)를 規定하고 升降出入의 時間的 關係를 包括하는 原理가 된다."

105) 이우진, 금형수, 素問 皮部論에 對한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 10: 2) p. 59. "在陽者 主內 在陰者 主出以滲於內'와 '其入經也 從陽部注於經 其出者 從陰內 注於骨'을 通해 볼때 內外의 關係는 進行의 關係로 봄이 妥當하다."

陰三陽의 開闔樞는 二次元의 平面構造만을 갖게 되어 陽開-陰闔, 陽闔-陰開, 陽樞-陰闔의 上下, 前後, 表裏의 陰陽關係만 成立할뿐 立體的 關係에 의한 太陽-陽明--少陽의 三陽의 開闔樞 關係와 太陰-厥陰-少陰의 三陰의 開闔樞 關係가 成立될 수 없으며 陽氣의 陰氣로의 轉化가 太陽-陽明-少陽-(轉化)-太陰-厥陰-少陰의 轉化形式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또한 內外의 關係가 成立되지 못하고 陰에 基礎하여 陽이 生함을 表現하지 못하여 一周의 反復 循環運動이 成立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內外 陰陽關係는 上下, 前後, 表裏의 空間的 位置에 따른 平面的 陰陽關係를 立體的 陰陽關係가 되게 함으로서 三陽의 開闔樞 關係, 三陰의 開闔樞 關係,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循環과 反復의 關係를 成立시키는 陰陽關係의 表現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後代의 醫家들이 비록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全體的 陰陽關係를 理解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張志聰 柯琴 等이 傷寒論에 있어 傳變의 形式으로 이를 應用하였고 李梃은 醫學入門에서 陽開-陰閉, 陽闔-陰闔, 陽樞-陰樞의 相合形式¹⁰⁶⁾으로 應用하였다.

2) 六經의 開闔樞 運動

三陰三陽의 開闔樞는 上下, 前後, 表裏, 內外의 平面的 立體的 陰陽關係에 의해 三陰의 相互關係, 三陽의 相互關係, 三陰과 三陽의 相互關係뿐만 아니라 三陰三陽 全體의 相互關係를 包括하는 運動形式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三陰三陽 全體의 相互聯繫의 關係를 六經¹⁰⁷⁾의 關係라 할 수 있는데 이를 原文에서는 '陰陽중중 積傳爲一周'라

表現하여 六經이 週期를 가지며 또한 反復하여 循環한다고 하였다. 六經의 循環과 反復은 三陰三陽의 開闔樞運動에 의해 多樣한 形態의 循環과 反復하는 一周運動의 形式을 가진다. 이러한 多樣한 三陰三陽의 一周形式을 循環의 形式과 反復의 形式으로 나누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積傳爲一周가 하나의 週期를 가질 때 둘째, 積傳爲一周가 反復하여 循環할 때로 區分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1) 積傳爲一周가 하나의 週期를 가질 때¹⁰⁸⁾의 六經運動

三陰三陽이 六經으로 開闔樞運動을 遂行할 때의 一周는 空間的 位置와 時間의 推移, 機能과 役割의 多樣한 狀況을 反映하여 表現된다. 이를 狀況에 따라 區分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空間上의 位置와 開闔樞의 配置에 따라 上下, 前後 表裏의 相關關係에 의해 少陰-太陽-太陰-陽明-少陽-厥陰의 生長收藏의 一周 形式을 가진다. 둘째, 人體는 外界環境 즉 春夏秋冬의 季節의 變化에 適應하여 自身을 維持¹⁰⁹⁾하는데 季節變化에 適應하는 三陰三陽의 開闔樞運動의 樣相¹¹⁰⁾¹¹¹⁾은 太陽開-陽明闔-少陽樞, 太陰開-厥陰闔-少陰樞의 一周 形式을 가진다. 清代의 醫家인 柯琴¹¹²⁾은 이 形式을 傷寒論의 解釋¹¹³⁾에 應用하

108) 하나의 週期를 가진다는 것은 三陰三陽의 開闔樞 運動이 生長收藏을 通해 生成하고 消滅하는 科程을 反映한 表現이다.

109) 本論 II-1 (1) 參照.

110) 開闔樞 運動은 太陽開-陽明闔-少陽樞-太陰開-厥陰闔-少陰樞의 運動이 基本運動이다.

111) 김세현, 柯琴의 二陽病解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논문집, 이리, 1996), pp. 13-7.

112) 유기덕, 柯琴의 傷寒學說로 본 仲景의 六經體系,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8), pp. 5-8. "柯琴은 清代 사람으로 古典의 精神, 即 聖人의 가르침의 頓相을 밝히기 위하여 實事求是, 곧 確實한 典據에 基礎를 둔 研究를 主唱하는 考證學派의 思想의 潮流에 따라 復古主義 實證主義에 立脚하여 傷寒論註, 傷寒論翼, 傷寒附翼 等의 著作를 썼다."

113) 유기덕, 전계서, pp. 8-16. "宋代의 傷寒論의 解釋은 理學의 盛行과 思想의 擬古風潮, 醫學 知識의 普及, 列印術 및 製紙術의 發達로 傷寒論의 理論 研究가 가장 活潑했던 時期다. 그 結果 著解, 整理, 補充이 이루어 졌는데 著解面에서 是 證候마다 痘機, 痘變에 對한 理論的 說明을 부연했고, 整

106) 강진춘, 六經穿鑿論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학회지, 1991, 12: 1), pp. 53-6. "三陰經과 三陽經은 陽開-陰闔, 陽闔-陰闔, 陽樞-陰樞의 相互關係를 形成한다. 이를 相通이라 한다. 이를 살펴보면 六經은 相反하여 相通한다. 그러므로 足厥陰肝은 手陽明大腸經과 相通하고 手少陰心은 足少陽膽經과 足太陰脾經은 手太陽小腸經과 手太陰肺經은 足太陽膀胱經과 足少陰腎經은 手少陽三焦經과 手厥陰心包經은 足陽明胃經과 相通한다." 고 하였다.

107) 01때 六經은 三陰經과 三陽經을 總稱하는 表現이다. 그러나 六經의 表現은 六氣, 經脈, 經絡, 傷寒 六經 모두를 表現하는 手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 그의 著書 傷寒來蘇集에서 王叔和의 理論的 틀을 否定하면서 傷寒論에 대한 解釋을 內經 热病論에서가 아닌 素問 <皮部論>에 根據해서 解釋할 것을 主張하여 “六經提綱은 각각 하나씩의 局面(地面)이 있어서 經絡에 拘碍되지 않을 뿐더러 風寒에 의해서 나눠질 수 없다.”고 하여 素問 <皮部論>을 引用하여 “左右, 上下를 區別하고 陰陽屬性 및 疾病의 始作과 끝을 區分하여 ‘陽主外 陰主內’의 原則에 따라 陽部는 들어가는 것을 主管하고 陰部는 나가는 것을 主管하여 스며든다.”고 하였다. 柯琴은 이러한 原理를 素問 <陰陽離合論>에 結付시켜 “太陽은 開가 되어 表를 主管하여 热病과 비슷하고 陽明은 閔이 되어 안을 主管하여 胃實을 提綱으로 內證(裏症之陽)을 主管하고 少陽은 樞(陽樞)가 되어 半表半裏證을 主管한다. 太陰은 開가 되어 陰中之 至陰으로 裏症之 陰을 主管하여 裏寒自利證을 主管하고 厥陰은 閔이 되어 陰中之陽이 되어 裏熱과 氣逆證을 主管하고 少陰은 陰中之樞(陰樞)가 되어 寒證과 热證이 나타난다.”고 하여 三陰三陽의 開闔樞를 六經에 適用시켜 그 役割과 機能으로서 각 經證의 提綱을 說明하였다. 셋째로, 靈樞 <根結>에 의하면 “三陽經과 三陰經의 關係는 少陽樞의 作用을 받게 되어 太陽陽明(開)-少陽(樞)-太陰厥陰-少陰(閔)의 形式¹¹⁴⁾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形式

理面에서는 脈, 證, 方, 藥, 表裏, 寒熱, 虛實等의 辨證要諦를 歸納하였고, 補充面에서는 治方과 溫病에 대해 補充하고 婦人 小兒 傷寒에 대해 添加하였다. 代表의 醫家로는 朱宏이 있는데 그는 經絡說을 主張하여 仲景의 三陰三陽은 足之 六經으로 足의 三陰三陽經의 循行경로와 生理의 特徵에 따라 痘證이 發顯된다. 고 하였는 데 이는 陰陽離合論에서의 三陰三陽이 足經만을 言及 한 것에 비추어 注目할 만한 理論이라 할 수 있다. 金元代는 臨床으로부터 出發하여 疾病의 發生과 變化를 追求하는 痘病學說方面에 많은 發展이 있었다. 明代는 尊經衛道의 復古思想이 研究方向의 主潮를 이루어 內經, 傷寒論, 本草經 등이 經典으로 떠받들여 졌으며 傷寒派와 溫病派의 論爭이 始作 되었다. 清代에는 反溫病派의 形成, 溫病學說의 成長, 解剖學의 發達, 外科 理論의 發達, 中西匯通派의 出現 등이 있었다. 清代의 張志聰은 六氣說을 主張하여 ‘太陽은 背部, 少陽은 脇部, 陽明은 胸部, 太陰은 腹部, 少陰은 脐下部, 厥陰은 季脇小腹部位를 主管함으로서 六經病증이 된다.’고 하였는데 三陰三陽의 空間的 配置와 關聯하여 注目할 만한 理論이라 할 수 있다.”

은 氣의 出入에 의한 氣의 흐름을反映한 形式이다. 즉 三陽經과 三陰經을 三陽의 開闔과 三陰經의 開闔樞를 前後關係에 의한 氣의 出入樣相으로 보아 側이 되어 氣의 出入關係가 不分明한 少陽을 陽轉爲陰의 樞로 解釋하여 經脈(絡)에 있어 氣의 흐름이 三陽에서 三陰으로 一周形式에 따라 흐른다는 것을 表現하고 있다. 以上이 一周의 形式이다.

(2) 積傳爲一周가 反復하여 循環할때의 六經運動

春夏秋冬의 四季節의 變化 등 外界環境의 變化가 週期的으로 反復하여 循環하듯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一周도 一周로 끝나는게 아니라 反復하여 循環하는 過程을 가진다. 그러므로 六經의 開闔樞는 反復循環의 形式을 가지게 되는데 그 過程은 生長收藏과 開闔樞配置에 따라 少陰에서 始作하여 太陽(開)-(閔)陽明-少陽(樞)-太陰(開)-(閔)厥陰-少陰(樞)의 形式을 갖게 된다. 이 形式의 意味는 두가지 方面에서 解釋 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少陰으로부터 生이 始作되고 太陽, 陽明, 太陰, 少陽은 長이 되고 收가 되며 厥陰은 藏이 되어 開闔樞-開闔樞(地)의 反復 循環運動이 遂行 된다. 둘째로는 少陰으로부터 太陽이 生하여 開가 되고 陽明, 少陽, 太陰, 厥陰이 長, 收, 藏이 되어 閔이 되고 다시 少陰이 樞가 되어 太陽의 生을 推動한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의 解釋으로 볼 때 反復循環의 週期形式은 陰陽氣의 上下 昇降運動, 前後 出入運動, 表裏聯關과 內外聯關에 의해 形成된 三陰三陽의 開闔樞 形式임을 알 수 있다. 즉 人間은 太陽-陽明-少陽-太陰-厥陰-少陰의 開闔樞의 六經運動의 結果로 生長收藏을 反復하여 生命活動을 維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形式을 六經全體의 開闔樞를 解釋한 原理로 理解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後代의 醫家들이 六經의 循環反復 形式을 氣의 흐름을反映한 表現으로

114) 樣維傑, 전계서, p. 60. “靈樞 <根結>에 의하면 ... 太陰爲閔少陽爲樞故開折則...”라 하여 二陽經의 開闔樞運動이 끝나면 少陽樞氣에 의해 太陰은 閔이되어 三陰經의 開闔樞運動이 始作됨을 表現하고 있다.

理解하여 氣의 出入關係를 中心으로 循環 反復形式을 設定하였다. 즉 三陰三陽의 氣의 흐름을 氣의 出入關係에 依存하여 해석하였다. 氣의 出入關係를 살펴보면(本論 開闔樞의 陰陽關係 (2)前後關係)에서 살펴보았듯이 太陽-陽明-少陽-太陰-厥陰-少陰의 形式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少陽의 位置가 問題인데 少陽은 空間的 위치上 側이 되어 出入關係로 解釋할 수는 없지만 그 意味를 開闔樞의 意味에서 推論하여 理解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한 最初의 解釋은 靈樞 <根結>에 表現되어 있다. ('積傳爲一周가 하나의 週期를 가질때' 參照.) 하지만 後代의 醫家들은 自身들의 三陰三陽의 開闔樞 解釋에 根據하여 多樣한 週期 形式을 主張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세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즉 少陽의 位置를 둘러싸고 '少陽-陽明이냐' 아니면 '陽明-少陽이냐'의 '中'의 意味와 '樞'의 意味에 대한 解釋의 差異와 '厥陰이 樞인가' '少陰이 樞인가'에 따라 그 週期形式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太陽-少陽-陽明, 太陰-少陰-厥陰의 週期形式을 就하는 흐름¹¹⁵⁾이다. 이들은 傷寒論의 六經提綱을 解釋함에 있어 傳移 樣相이 少陽少陰의 樞가 中間에 位置하여 傳變의 意味와 痘證解釋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둘째 太陽-少陽-陽明-太陰-厥陰-少陰의 週期形式을 就하는 흐름¹¹⁶⁾이다. 이들은 厥陰이 中이 되어 樞가 成으로(비록 開闔이라 表現하였더라도) 半表半裏의 證을 發現한다고 하여 陽의 三, 一, 二, 陰의 三, 一, 二의 傳移形式을 主張한다. 셋째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의 週期形式을 就하는 흐름¹¹⁷⁾이다. 이들은 厥陰을 樞로 理解하여 傷寒論 傳變의 形式과 痘證을 解釋하는데 王琦, 方藥中 等이 이에 屬한다. 이들은 이러한 週期形式을 應用하여 "太陽-陽明-少陽, 太陰-少陰-厥陰의 傳變型式은 素問 热論의 型式으로 이는 陰陽의 多少에 의한 三, 二, 一, 陰陽으로 解釋할 때

115) 김인석, 전계서, p. 13.

116) 김인석, 전계서, p. 15.

117) 박세기, 仲景 傷寒論의 六經病에 對한 內外論의 解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5), p. 42.

形成될 수 있는 型式이다. 그러므로 이 型式에 따르면 既存의 六經傳變의 典型을 理解할 수 있다."고 하여 "太陽-陽明-少陽(外로 開), 太陰-少陰(內로 開)- 厥陰樞의 關係가 되어 厥陰에서 陽이 生하여 恢復하거나 絶하여 死亡¹¹⁸⁾한다."고 하였다.

結局 이러한 週期形式을 主張하는 醫家들의 立場은 開闔樞 配置와 轉移形式을 設定하는데 있어 差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氣의 出入關係에 의한 氣의 흐름으로 三陰三陽의 開闔樞를 理解한 立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積傳爲一周가 反復循環할 때의 三陰三陽의 開闔樞運動¹¹⁹⁾과 週期形式은 三陰三讓의 開闔樞에 대한 陰陽離合論의 解釋을 바탕으로 設定하여야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意味가 全體的으로 理解될 수 있는 것이다.

III. 結論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對하여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을 바탕으로 歷代醫書와 最近에 發表된 여러 文獻들을 參考하여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歷代 註釋家들의 概念을 살펴보고 開闔樞의 相互關係와 陰陽關係 및 六經運動에 대해 原文의 表現을 再構成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그 原理를 研究한 結果 原文은 天地自然의 變化原理를 人體에 適用하여 人間(生命體)이 外界環境에 適應하여 生長收藏의 生命活動을 營爲하며 그 過程은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의해 遂行됨을 表現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原理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陰三陽은 陰陽氣의 多, 中, 少에 따른

118) 王은 「王琦 外 4人, 전계서, pp. 41-2.」에서 본문과 같이 주장했고 김은 「김인석, 六經病의 傳變에 關한 文獻의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992), pp. 11-3, 15.」에서 본문의 주장과 함께 "傳變의 次序가 太陽-少陽-陽明으로 보는 見解는 少陽의 部位와 症狀의 特性을 考慮한 데서 起因한 것이다."고 하여 樞를 五行의 化氣로 認識하여 解釋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見解는 樞를 氣化의 中心縮으로 理解하는 後代의 認識에 影響을 주었다.
119) 김준기, 최달영, 전계서, pp. 438-40.

次序에 의해 区分되는 것이 아니라 三陰三陽이 陰陽氣의 多少偏差에 따른 機能과 役割의 差異에 따라 각각의 固有한 氣의 狀態를 反映하여 太陽 陽明 少陽 太陰 腎陰 少陰으로 表現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三陰三陽의 相互關係는 陰陽關係이면서 同時に 三陰三陽의 關係로서 三陰三陽이 空間的位置에 따라 平面的 立體的으로 聯關되어 이를 통해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相互關係가 成立됨을 表現하고 있다. 즉 太陽-少陰의 陽開-陰樞의 上下關係를 통해 '開'의 概念을 設定하고 氣의 昇降運動의 樣相과 陰陽活動의 生成原理를 表現하고 있다. 陽明-太陰의 陽闔-陰開의 前後關係를 통해 '開闔'의 概念을 設定하고 氣의 出入運動과 時間의 推移에 따른 氣의 흐름이 前後의 空間的 位置關係에 의해 成立됨을 表現하여 陰陽의 相互 轉移, 轉化의 原理를 表現하고 있다. 少陽-厥陰의 陽樞-陰闔의 表裏關係를 통해 '樞'의 概念과 '闔'의 意味를 設定하고 陰陽活動의 結果를 收斂하고 貯藏하는 原理를 表現하고 있다. 陽外-陰內의 三陰經과 三陽經의 內外關係를 통해 三陰三陽이 陰陽關係에 있음을 規程하고 平面的 位置關係에 의한 三陰三陽의 開闔樞 配屬을 立體的 位置關係 속에서의 開闔樞 關係로 成立되게 함으로서 人體에 具體的으로 適用可能한 理論임을 表現하고 있다.

셋째, 三陰三陽의 開闔樞 關係는 三陰과 三陽의 關係이면서 同時に 陰陽關係임을 表現하여 三陰三陽의 開闔樞 運動의 循環 反復하는 過程을 遂行함을 表現함으로서 三陰三陽의 開闔樞가 外界環境의 循環 反復하는 變化過程에 適切히 適應하여 自身을 維持함을 表現하고 있다.

넷째, 三陰三陽의 開闔樞의 相互關係와 陰陽關係 및 六經의 運動樣相에 대한 理解는 原文 內容의 複雜性과 表現의 簡潔함으로 因해 後代 醫家들의 解釋에 많은 差異를 가지게 하였다.

以上의 要約에서 나타난 바 대로 陰陽離合論을 바탕으로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體系的 整理와 解釋을 試圖함으로서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認識의 基盤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內經 素問 <皮部論>에 言及된 開闔樞의 病理的 解釋과 五運六氣論에서의 開闔樞의 解釋과 運用에 대한 研究가 此後에 隨伴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 Abstract =

Study on the bolt-leaf-hanges in Three-yum and Three yang based on Treatise on the Darting and meeting of Yum and yang

**Ha, Keun-Ho · Kwon, Young-Kyu · Kim,
Kwang-Joong**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San Univ., Kyunsan, Korea

In terms of the bolt-leaf-hanges in Three-yum and Three yang I referred to successive medical books and many recent literatures on the basis of *Huangjenegeong Somun* Treatise on the Darting and meeting of Yin and yang, thus considered concept of successive commentators about the bolt-leaf-hanges in Three-yum and Three yang and reconstructed and systematically arranged the bolt-leaf-hanges's interrelationship, yum-yang's relation and movement of six channel, and then studied there principle in all the universe apply the body and the process is operated by the bolt-leaf-hanges in the principles followed in human make his life adaption environment. The process is operated by the bolt-leaf-hanges in Three-yum and Three yang. The principles followed in.

Firstly, Three-yum and Three yang is not differentiated by many, middle, little of yum-yang's different function & role.

Secondly, Three-yum and Three yang is negatively related while showing that there is the

bolt-leaf-hanges relationship through space of Three-yum and Three yang. Through internal relationship of Three yum channel & Three yang channel, it can be proven that Three-yum and Three yang is in negative relation and through achieving the bolt-leaf-hanges relation in dimensional concept, it can be proven that it can actually be applied to human.

Thirdly, by showing Three-yum and Three yang's the bolt-leaf-hanges relation is relation between Three yum & Three yang as well as negative relation, it can be shown that Three-yum and Three yang's the bolt-leaf-hanges activity is circular, and that it maintains itself through appropriate transformation.

Fourth, understanding of Three-yum and Three yang's the bolt-leaf-hanges relationship and yum-yang Concern & six channer's activity has been varied. It means that the understanding is affected by society, philosophical & research culture of the various times.

The purpose has been to systematically arrange and diagnosing Three-yum and Three yang's the bolt-leaf-hanges and thus make up a fundamental for recognition. But, further study should be carried out on medical explanation on the bolt-leaf-hanges and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the bolt-leaf-hanges in *O-UnYukKiron*.

Key Word: Three-yum and Three yang, Treatise on the Darting and meeting of Yum and yang, the bolt-leaf-hanges(開闔樞)

參考文獻

1. 김광중, 經絡生理學, 대구;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92.
2. 김광중, 韓醫學의 形成과 體系, 대구; 중문사, 1991.
3. 김완희, 臟腑辨證論治, 서울; 성보사, 1985.
4. 윤길영, 東醫學方法論研究, 서울; 성보사, 1983.
5. 이경우, 編註譯解 黃帝內經素問, 서울; 역강출판사, 1994.
6. 임종국, 鍼灸治療學, 서울; 집문당, 1983.
7. 홍원식, 校讎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4.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9.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70년.
10. 王琦 外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11.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4.
12. 강정수, 開闔樞에 關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996.
13. 강정수, 三陰三陽의 概念과 太陽의 生理 經脈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1.
14. 강진춘, 六經穿鑿論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1.
15. 경인구, 三陰三陽의 概念에 對한 比較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16. 김동환, 現代科學과 朱子思想,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5.
17. 김세현, 柯琴의 三陽病解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18. 김순기 외 1인, 三陰三陽 表裏 關係의 構成原理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5.
19. 김인석, 六經病의 傳變에 關한 文獻的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2.
20. 김정우, 김길훤, 經絡의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 동의생리학회지, 1991.
21. 김준기, 최달영, 三陰三陽 表裏 關係의 構成原理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6.
22. 김중한, 黃帝內經에 나오는 三陰三陽과 開闔樞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부산; 동의대학교출판부, 1997.
23. 문성철, 김성훈, 歷代醫家들의 昇降論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7.
24.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학회지, 1996.
25. 박찬국, 최삼섭, 隅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

- 三陽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
26. 박세기, 仲景 傷寒論의 六經病에 대한 内外論的
解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27. 배병철, 內經의 學術思想. 東洋醫學, 1996.
28. 송병찬, 三陰三陽의 運氣論의 理解.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3.
29. 신창열 외 1명, 千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경희
한의대논문집, 1987.
30. 안창범, 三陰三陽의 氣血多少論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96.
31. 유기덕, 柯琴의 傷寒學說로 본 仲景의 六經體系.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
32. 윤창열, 三陰三陽의 開闢樞에 關한 考察, 대전대
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6.
33. 윤창열, 陰陽의 語源과 陰陽論의 起源에 關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997.
34.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對한 研究, 경
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6.
35. 이우진, 금형수, 素問 皮部論에 對한 研究, 대한
동의병리학회지, 1996.
36. 楊育周, 樞機與 樞機不利之 我見; 浙江中醫學院
報, 1986.